



“상주꽃감=양촌꽃감” 발언에 화난 상주시... 또 사고친 김종민 의원

양촌 꽃감축제서 김 의원 상주꽃감 비하 막말 논란... 김 의원 “상주시민들께 사과”



▲ 지난 14일 충남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펼쳐진 제17회 양촌꽃감축제 개막식에 참석한 김종민 국회의원의 모습.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정체권이 겨울철의 간식거리인 '꽃감' 원산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14일 논산시의 대표축제인 '2019 양촌꽃감 축제' 개최식에서 "상주꽃감이 유명해서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는데 알고 보니 상주꽃감이 양촌에서 갔더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된 것.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향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경북 상주시 꽃감 농가들은 김 의원의 비하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꽃감의 대표브랜드로 알려진 상주 꽃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상주 꽃감 농가들은 "상주 전통 꽃감농업"은 지난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국가중요농

업유산 제15호로 최종 지정돼 체계적인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주 전통 꽃감이 감 재배와 꽃감 제조를 위해 감나무 접목기술의 계승을 통해 '상주 동시'라는 고유품종을 오랫동안 이어온 역사성을 가치로 인정 받은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은 우리 상주꽃감 농가를 원천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구나 상주시 꽃감 농가들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5일간) '제9회 대한민국꽃감축제'를 앞둔 상황에서 김 의원의 발언으로 축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상주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김 의원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16일 상주꽃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상주시의회는 "전국 최고 품질

과 생산량을 자랑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국가 중요농업유산 제15호인 상주꽃감은 다른 지역 농산품과 비교해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향후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김 의원은 상주꽃감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국회 또한 지자체 간 신뢰를 저버리고 상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종민 국회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의성·군위·청송) 국회의원은 이날 "김 의원이 상주꽃감에 대한 막말과 허위사실 발언으로 상주 꽃감 농가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았다"며 "상주꽃감 농가의 자존심을 꺾는 막말에 책임지고 즉각 사과하고 대죄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비례대표)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김 의원

이 지난 14일 충남 논산시의 축제인 '2019 양촌꽃감 축제' 개최식에서 "상주꽃감이 유명해서 중국으로 수출까지 하는데 알고 보니 양촌에서 가져온 것이다"는 발언으로 상주꽃감 농가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모멸감을 안겨 주었다.면서 "전국 꽃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조선 예종 때 임금에게 진상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상주꽃감을 모욕한 김종민 의원에게 즉각적인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민들도 16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송병길 법무사는 이날 "김 의원이 한국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상주꽃감의 가치와 3천860가구에 달하는 상주꽃감 농가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상주경찰서에 김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충남 논산지역 시민들도 김 의원의 무분별한 발언에 대해 끝지 않은 시각이다.

“장애학생과 직업계고 일자리 확대”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세종시교육청이 장애학생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17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장애인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학생을 사서보조원으로 선발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을 교육공무직으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중증장애인 5~7명씩 모두 42명을 사서보조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 도서관에서 책 대출과 반납을 돕는다.

1년간 기간제 근로자로 업무를 잘 수행하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면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은 이들의 장애가 중증인 점을 고려해 개인

별 일자리 적응도 도울 방침이며,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계열을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교육공무직 선발의 문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직종별 채용 인원의 20%를 직업계고 출신으로 뽑도록 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직종에 걸쳐 모두 64명을 단계별로 선발할 계획이다.

최 교감은 "지역 출신 장애 학생들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위해 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 기자

문 대통령, 차기 총리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려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고,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험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고 평가했다.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이 국무총리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며 민생과 경제를 우선하도록 내각을 이끌고 국민들께 신뢰와 안정감을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떠나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선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시는 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부여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농산리 고분군

UNESCO World Heritage City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
백제 고도

'내포신도시·홍성 원도심 동반성장' 방안 모색 토론회

충남도의회 이종화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17일 홍성문화원서 개최

충남도의회는 17일 홍성문화원에서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길 공주대학교 교수가 발표자로,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과 서용준 홍성군청 도시계획 전문위원, 류철호(사)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유환동 홍성문화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성길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실질적 지역균형발전과 도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군과 함께 연합도시권으로 상생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주변 주민이 소외와 불만이 없도록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주변지



역 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들도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기본 방향과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왕건 본부장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제시하며 "내포신도시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반영한 장

기발전계획 수립과 홍성 원도심에는 새로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하기보다 기존의 문화, 관광, 역사 등 다양한 지역자산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용준 전문위원은 홍성과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개별적 행정단위 보다는 통합적 상생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류철호 회장은 홍성읍에 형성

된 의료타운을 바탕으로 타 업종과 함께 특화거리 범위를 확대하고 내포신도시에는 문화 특화거리 조성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제안했다.

이종화 의원은 "충청남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홍성의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현상은 심각하게 나타났다"며 "원도심 공동화는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현상이지만,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연계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을 토대로 살기 좋은 내포신도시와 홍성 원도심을 만드는 윈-윈(WIN WIN)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환기자



대전 중구의회, 중구지체장애인 격려금 전달

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는 17일 의정실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인 중구지체장애인 20명을 초청, 격려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중구지체장애인협회 김채린 회장은 "작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체장애인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기 위해 초청행사를 개최하여 준 중구의회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협회에서도 지체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산·태안21대 총선 조한기·이완섭 예비후보자 등록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첫날 청와대 전 비서관 조한기(더불어민주당) 제7대, 8대 시장을 지낸 이완섭(자유한국당)씨가 예비후보 등록 등록을 마쳤다.

서산·태안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조한기 예비후보는 "민생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서산태안의 더 큰 발전, 더 큰 정치에 제가 앞장서겠다"며 출마 포부를 밝히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조 예비후보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는 것이 막힌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우는 편협하고 낡은 정치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 국회, 행정부, 총리실, 청와대까지 한 명의 정치인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이력을 쌓아온 조한기 예비후보는 자신이 서산·태안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고 현실화시킬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도 이날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이 전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022년에 치러질 서산시장 선거에 재도전하리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는 것으로 서산과 태안의 유권자들은 놀라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완섭 전 시장은 짙은 보도 자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서산과 태안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기수가 되겠다는 말로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아울러 서산시장으로 재직하는

등단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지역 정치권의 외면과 행정의 느슨함으로 유아무야되며 모습을 지켜보지만 하는 것도 안타까운 심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전제로 해야 하므로 뚜렷한 결과가 없이 말만 무성한 정치는 일신해 나가야 한다"라는 시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 전 시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할 때까지 인사와 조직, 제도혁신 및 정부상훈 등 주요업무에 담당했으며, 강한 서산에서는 부시장을 거쳐 재선 시장으로 근무하며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해 "해지는 서산"을 "해뜨는 서산"으로 변모시킨 7대, 8대 서산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서산=김정환기자

대덕구 박종래·박영순,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마쳐



박종래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지역위원장과 박영순 전 대전시 정부부시장이 17일 오전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출마의 변에서 "보수의 뒷받침으로 여겨졌던 대덕구였다. 하지만 미래를 향한 지

역주민의 연원과 당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며, 대덕에 진보의 디딤돌을 놓았다. "면서 "이제 총선 승리만 남았다. 대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완성은 총선 승리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부러진 칼로

는 썩은 무도 자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라며 "평범한 경력과 학력을 지닌 사람도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영순 전 대전시 정부부시장은 이날 출마의 변에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두 번의 청와대 국정경험과 지방행정 경험을 살려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 새롭게 도약하는 대덕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정복기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일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주 부어 출마를

지역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박 전 대변인은 "우리 지역의 생생한 민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일을 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낡고 어두웠던 시대와 결별하고, 늘 우리 주민과 함께, 주민들의 목소리가 현실에 반영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예비후보는 19대 국회의원인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장 비서실장, 충남사회복지협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충남체조협회 회장,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초대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정상범기자

정용선 자유한국당 당진시당협위원장, 21대 총선 출마 선언

기존 정치인들이 외면했던 '낯선 정치' 선언



정용선 자유한국당 당진시당협위원장(55세, 전 경기경찰청장이) 21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현 정치권의 잘못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기회는 다양하고 과정은 자유로움과 결과는 각자가 책임 있게 수용할 줄 아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인권과 권리 못지않게 책임과 의무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선진 국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있고, 시민들에게 가장 쾌적하고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0년간의 공직 경험과 역대 대동령들의 비서실에서 국정운영을 보좌하면서 키워온 정책적 안목과 정부적 감각, 행정학자로서의 지식과 소신을 오로지 국가와 당진의 발전을 위해 쏟아 붓겠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기성 정치인들이 험난하고 힘들다며 외면해 왔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낯선 정치'를 통해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치인이 될 것임을 약속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복기왕 전 비서관,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마쳐

본격적인 총선 홍보 시작



여러분과 아산시민들께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알리는데는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복 예비후보는 첫 일정으로 아산시장에 인복지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재인 시기 저희 복지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관계자의 인사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목적"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복 예비후보는 두 번째 방문지 로아산시어울림경제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시장 재임시절 장애 매김결지일명 '장미마을'을 없애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복 예비후보에게 남다른 곳이며, 지금도 여성친화형 도시 재생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복 예비후보는 "추진과정이 참 어려웠다"며, "여성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가는 이곳을 처음으로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복 예비후보가 첫날 고향을 찾은 것도 눈에 띄었다. 특히 노인회 은양6동 분회를 찾은 복 예비후보는 "큰일을 치르러 전에 먼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뵈러 왔다"며 큰절을 해 노인들에게 박수를 받기도 했다.

권곡동 박물관사거리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복기왕 예비후보는 이후에 외벽현 사무를 설치하고 18일부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출근길 아침 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나소열 출마선언 "지금 지역 발전 적기, 책임자 뽑아야"

17일 예비 등록, 청와대 충남도 경력 장점 내세워 '능력강조'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을 통해 "3번의 실패를 지양분 삼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힘으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광야에 나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 "3번의 도전은 실패했지만 3선 군수를 거쳐, 청와대 비서관, 충남도 부지사를 통해 국정과 도정을 경험한 능력을 이제 지역에 되돌리고 싶다"며 출마의 포부를 강조했다.

그는 "보령과 서천은 관광과 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의 중심지로 관련 기관과 산업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적극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며 "도지사과 대통령이 믿고 일을 맡긴 나소열이 보령서천에서 그 일을 해낼 책임자로,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도지사와 같이 보령서천 주민들도 나소열을 반드시 선택해 주길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나 예비후보는 보령과 서천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자동차 튜닝 산업, 보령 석탄화력의 LNG 전환, 해양관련 캠퍼스 유치, 21번국도 완성, 해양관광복합레저단지 유치와 서천의 해양바이오 관련 기관 등 유치, 브라운필드 활용, 장항선 복선화 연장 사업 등에 양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충남도와 중앙정부에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예비후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국회의원에 2번째 도전하게 된다"라며 "그동안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원원에 힘입어 없이 대한민국과 지역을 위해 일해 온 경험과 능력을 지역발전엔 불사르고 싶다. 보령과 서천을 바꾸고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보령=김정미기자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 대학 순회 정책간담회 개최

"대전 청년정책 대학생 등으로 확장해야"



들어다보고,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대전시 청년정책의 홍보부족과 까다로운 선발 기준 및 신청 절차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청년취업희망카드 대학생 확대, 한눈에 보는 청년정책 어플, 진로탐색을 위한 휴학지원 제도 필요성, 심야버스·티슈 운영 개선 및 어플 개발, 대중교통 패스권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기현 의원은 "대학 졸업 후에도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할 수 있

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충남대병원 정규직 전환 노사 갈등 장기화되나?

보건노조 “병원 측 자회사 유도 꿈수... 직접고용까지 끝장 투쟁”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둘러싼 충남대병원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남대병원에서 “끝까지 간다! 자회사 추진 충남대병원 규탄! 직접고용 쟁취! 보건의료노조 끝장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파업 진행 중인 부산대병원비정규직지부·광주전남지역지부 등을 비롯해 전국 보건의료노조 간부·조합원 300여 명과 충남대병원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공공연대노조

충남대병원지회 조합원,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까지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충남대병원의 직접고용 상황을 (아직까지) 직접고용 전환하지 않으니 다른 국립대병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면서, “충남대병원 합의를 시작으로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모두 올해까지 반드시 직접고용 전환 합의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단결 투쟁하자”라고 호소했다.

경과 보고와 투쟁 발언을 맡은 임백관 보건의료노조 충남대병원

지부장은 “지난시간 직접고용을 위해 쉬없이 달려왔다”라면서, “앞으로 누가 어떤 일을 하나고 들었을 때 충남대병원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대답하자. 우리는 직접고용 준비가 끝났다. 이제 원장님의 결단만 남았다”라고 강조했다.

파업 사업장 소속의 투쟁 발언이 이어졌다. 강신원 보건의료노조 광주지역지부장은 “전남대병원의 온갖 비리가 이미 드러났다”라면서, “자회사는 하청 노동자상대로 돈벌이 하려는 병원의 야심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오늘로 7번째 부산대병원 비정규직지부가 파업 중이며, 단 하나의 이탈자도 없이 파업대열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정규직 지부가 엄호하고 동지들 손절대 놓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송유순 공공연대노조 대전지부 충남대병원분회 미화분회장은 “충남대병원에 직접고용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충남대병원은 빨리 답변하고 정당한 근무를 위해 직접 고용을 진행하라”고 외쳤다.

이정복 기자

토지행정 추진실적평가 공주시 우수 기관 선정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충청남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적극적인 토지행정 업무 추진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2019년 토지행정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토지정책과 지적관리, 부동산 산소 정책, 공간정보, 역점시책, 특수시책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과 도로명주소제도를 이해하고 장려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도로명주소 홍보' 등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토지행정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무인 비행장치 운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계획과 자격증취득 등 드론을 통한 행정업무 활용 추진성과도 인정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월 충청남도 부동산가격공시 최우수기관 선정과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명주소업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토지행정 3관왕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다양한 토지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주문은 잊어도, 감동은 기억하세요”

당진화력본부, '주문을 잊은 카페' 운영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운옥)는 17일 당진 대덕동에 위치한 카페 아이두에서 '주문을 잊은 카페' 당진 1호점을 운영했다.

'주문을 잊은 카페'는 치매를 겪는 어르신들이 카페 직원으로 근무하고, 카페 손님으로 서빙에 나서고, 카페 손님이 주문과 다른 음료가 나와도 유쾌하게 받아들이며 치매에 대해 오신 치매 어르신 4명이 카페 직원으로 참여했으며, 당진화력본부 임직원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손님을 참여했다.

당진화력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인식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 기자

공공기관 20곳·민간기업 439곳 장애인 고용의무 '나 몰라라'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민간기업들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9개 기관 및 민간기업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률이 명단 공표 기준에 해당해 명단 공개가 예고된 1천 167곳 중 올해 11월까지 신규 채용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기관과 기업들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총 439개소로 그 중 대기업 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은 26개이다.

최근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집단은 대림의 주식회사 삼호, 고려개발주, 한진(주)의 ㈜진에어, ㈜대한항공, 코오롱의 코오롱생명과학(주), 코오롱글로벌,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지이

에너지운영, 엘지의 하이엡솔루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의 현대이엔티주식회사.

이들 그룹은 일부 소속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낮아 사전 예고 대상으로 선정됐음에도 신규 채용이나 구인 신청 등 명단 공표에서 제외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이번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엘코인크한국지점 등 82개소, 1,000인 미만 500인 이상은 프라다코리아 등 155개소, 500인 미만 300인 이상은 경희대학교 등 202개소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총 20개소로 그 중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년 연속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연구직이 다수인 (재)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 장애인에 전혀 없었으나 사내 카페, 자료 입력, 문

서 정리 분야에 발달장애인 6명을 채용을 전제로 지원 고용하고, 2020년 인사규칙 개정을 통해 공무원 6급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 및 지자체는 모두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부문 총 29개 기관이 사전 예고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규 채용으로 명단 공표 기준을 달성하고 구인 신청 등을 통해 내년도 4월까지 장애인 고용을 약속하는 등 장애인 고용 노력이 인정되어 처음으로 모든 기관이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는 명단 공표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채용 지원을 바탕으로 각 기관과 기업이 협업하여 명단 공표 대상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내년에도 장애인 채용이 보다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관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선프' 티스테이션, 구매 페스티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의 타이어 중심 자동차 토탈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 Station)이 오는 31일까지 겨울용 타이어 '윈터 아이선프' 구매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아이선프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대상 타이어는 '윈터 아이선프 에보2'와 '윈터 아이선프 에보2 SUV', '윈터 아이선프 i22 A', '윈터 아이선프 X' 등 4개 제품으로 구매 고객에게는 백워머, 생애 제거기, 핫팩 등으로 구성된 겨울용품 키트를 기본 지급한다. 추가로 티스테이션닷컴(www.tstation.com)을 방문해 온라인으로 매장 방문 예약을 실시한 고객에게 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타이어 1개당 1만원 할인 스마트 쿠폰 4만원권이 제공된다.

온라인 구매 고객에게도 풍성한 혜택이 제공된다. 티스테이션닷컴(www.tstation.com)을 방문하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대상 타이어에 적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구매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과 겨울용품 키트도 함께 제공된다.

이외에도 행사 대상 제품을 KB국민카드나 씨티카드 결제하면 4만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송병배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경부선 광역철도(수도권 1호선) 서울역→천안 34회→60회 확대 운행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30일부터 서울역(울산)→천안(신창·병점)을 운행 중인 경부선 급행전철의 운행횟수를 평일 기준 34회에서 60회로 26회 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객 편의와 급행전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용수요가 많은 급행역에 급행전철을 신규 정착하고, 운행간도 현행 용산·서울역→병점·천안·신창역에서 청량리역→용산·서울역→천안·신창역으로 연장 및 일원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제고 등을 목표로 2017년 7월 '수도권 전철 급행화 방안'을 발표하고 급행전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그런데, 수원·평택 등 수도권 남부의 장거리 출퇴근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피선 부족 등 시설여건의 한계로 경부선 광역전철의 급행확대가 제한적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는 '18년 7월부터 급행구형역, 군포역 2개 역에 대피선 설치 등 시설개량(예산 254억원)을 추진하여 급행 9월에 준공하고 운행횟수를 대폭 확대하는 급행열차 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급행전철 확대 조치로 급행전철의 운행시각이 평균 50분→30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30분 간격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급행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급행전철 운행간도를 연장(서울·용산역→청량리역)함에 따라 서울 도심 주요역(시청, 종로 3가, 동대문 등)에서도 급행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급행전철의 수

혜지역이 확대되고, 급행 열차의 환승편도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안양역, 금정역, 성균관대역, 의왕역 등과 인접한 의왕역, 수원당수 등 7개 지구*에는 약 2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으로 급행전철 수혜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피선 설치에 따라, 경부선 급행전철이 KTX·무궁화 등 여객열차가 운행하는 선로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선로공용에 따른 열차의 운행 비효율과 안전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급행전철 확대대로 불가피하게 정차할수가 감소되는 일부 역은 향후 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행 시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의 전철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급행확대는 그간 추진되었던 것보다 큰 규모로 진행되어 경부선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요소 대폭 줄인다

불합격 판정 기준 14계통 53개 항목→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

정부가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인 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줄어든다.

이중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하고,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염, 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한다.

또한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증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40)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뀌게 된다.

특히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은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헬스관 감소와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은 '중증 혈액질환'으로 표현한다.

아울러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

검사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응시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과학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김석환 홍성군수,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 수상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미래비전 대상 & 탑클래스 대상' 수상식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행보를 인정받아 자치행정부분 미래비전 대상 수상했다.

행정의 달인 김석환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이 인정받으며 대상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 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한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이 우선이라는 신념을 갖고 민선5기 군수로 취임 후 매월 월급에서 일정부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민선6기 홍성사랑장학금 100억 원을 조성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노력해 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젊은 도시 홍성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환기자

● 통 정 ●

사회복지시설 방문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 18일 오전 9시 45분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시설(실버랜드 등 3곳)을 방문.

승년의 밤 행사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18일 오전 11시 30분 대전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열리는 2019년도 의정성과 결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오후 7시 더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리는 자원봉사연합회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마을공동체 성과환마당 개최



황인호 동구청장 = 18일 낮 10시 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사이팅(Exciting) 동구 마을공동체 성과환마당'을 개최.

제22기 노인대학 수료식



박용갑 중구청장 = 18일 오후 3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열리는 '제22기 노인대학 수료식' 참석.

마을공동체 성공공유회



장종태 서구청장 = 18일 오후 1시 30분에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열리는 서구 마을공동체 성공공유회에 참석.

유성구 사회적경제성과보고회



정용래 유성구청장 = 18일 오후 6시 라온컨벤션 2층에서 열리는 유성구 사회적경제 성과보고회에 참석.

대덕구 평생학습 경연대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 18일 오후 2시 구청 청법관에서 열리는 대덕구 평생학습 경연대회에 참석.

대전시립미술관 초청대담 개최

대전시립미술관(관장 송승혜)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시립미술관 강당에서 최원일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 단장을 초청해 '미술관과 문화행정'을 주제로 초청대담(DMA Dialogue)을 개최한다.

이번 대담은 문화정책에서 지역미술관이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가치 구현을 위한 초청대담이다. 대담에서 최원일 단장과 송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와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위해 미술관이 갖춰야 할 행정적 역량과 태도를 문화행정의 관점으로 살펴본다. 한편, 참가비는 무료이며 미술관 홈페이지(www.daejeon.go.kr/dma)와 OK 예약서비스를 통해 사전 접수 받는다.

대전시, 2019년 대전마을미디어 한마당 개최

참여 공동체 활동성과 공유·소통

대전시는 오는 19일 대전시청 지미디어센터 4층 다목적홀에서 '2019년 대전마을미디어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풀뿌리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참여 공동체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대전시가 주최하고 시청지미디어재단 대전시청지미디어센터가 주관한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1부 '자란다 마을미디어'는 사례 공유 컨퍼런스로 진행된다. 공동체 활성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 지역 온·오프라인 매체의 활동 사례에 이어 서울, 수원, 옥천 등 타 지역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을미디어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2부 '잘한다 마을미디어'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며, 한 해 빛나는 성과를 보여준 활동가 및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활동가들의 소회를 하심담회하게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또한 '대전 미디어를 소개합니

다(대전미소)'를 주제로 한 미디어 전시도 마련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미디어 한마당 행사가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며 "대전시도 마을미디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년 대전마을미디어 한마당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사전 등록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대전마을미디어(http://www.djmedia.co.kr)를 참고

하거나 전화(042-865-3723)로 문의하면 된다. 김태선 기자

유성 30년 발전상·비전 담은 구사(區史) 출간

유성구 출범 이후 30년간의 발전상과 미래 비전을 담은 구사(區史)가 출간됐다. 유성구 구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재웅 유성문화원장은 17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정용래 유성구청장, 하경옥 유성구의회 의장, 편찬위원, 각종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회장, 통장협의회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 30년사 '지나온 역사와 가야할 길-유성의 30년을 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유성구 30년사는 발전상 화보, 1989년 유성구 승격 직전 긴박했던 상황, 유성의 정체성, 관선·민선 시대 주요 정책, 의정사, 최근 변화상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과학수도를 지향하는 유성구의 미래비전,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사인과 함께 기획해 기록성을 높인 점이 눈에 띈다. 대전 지치구 가운데 30년사를 발간한 자치단체는 유성구가 유일하다. 이재웅 편찬위원장은 "단순한 사서나 백서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원회를 열어 지역의 정체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30년사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애郷심을 드높이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중요 사업 중 하나가 30년사 편찬이었는데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30년사에는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중추도시, 도농복합도시, 국방도시, 대학도시 등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만큼 구민에게도 유용한 교양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30년사는 모두 700부가 발간돼 일선 학교와 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성구는 1989년 1월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분리·승격되면서 유성출장소에서 구로 동반 승격돼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이재웅 편찬위원장은 "단순한 사서나 백서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위원회를 열어 지역의 정체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폭넓은 자료를 수집하면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췄다"며, "30년사가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애郷심을 드높이는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용래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중요 사업 중 하나가 30년사 편찬이었는데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며, "30년사에는 영광의 순간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 중추도시, 도농복합도시, 국방도시, 대학도시 등의 특징을 잘 표현한 만큼 구민에게도 유용한 교양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30년사는 모두 700부가 발간돼 일선 학교와 도서관 등 주요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유성구는 1989년 1월 충청남도 대전시가 대전직할시로 분리·승격되면서 유성출장소에서 구로 동반 승격돼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제6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대전시 소방본부(본부장 김태환)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대전중부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강사 및 교육담당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119 시민체력센터 서인모 소방장이 차지했으며, 서인모 강사는 대전시장 시장 수상과 함께 2020년도 소방청이 주관하는 전국대회 대전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경연 참가자들은 사전에 본부 및 소방서별 자체 선발을 거친 검증된 강사들이며, 그동안 안전교육을 통해 쌓아온 강의기법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소방안전강사는 학교, 기업, 각종 단체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대국민 안전교육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전시 소방본부에는 총 50명의 소방안전강사가 있다. 김태선 기자

"온(溫)맵시로 체온은 높이고, 난방비는 줄이세요"

서구 범국민 온(溫)맵시 내복 입기 캠페인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18일과 24일에 시민단체와 함께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위한 '범국민 온(溫)맵시 내복 입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구그린리더협의회, 온실가스 컨설턴트, 둔산1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여 시청역 네거리와 갤러리타워앞에 캠페인

행사를 펼치며 내복 입기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을 권장할 계획이다. 내복을 입으면 최소 2.4℃의 보온효과가 발생해 온 국민이 내복을 입을 경우 연간 339.3kg의 CO2를 줄일 수 있고 난방비용 절감과 함께 혈액순환 개선, 피부건조증 예방 등 체온 관리를 도와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은 더 이

상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의 작은 실천이 기후변화로부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구 관계자는 "온맵시는 모든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녹색생활 실천 운동"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시민 모두가 친환경 패션을 입고 겨울을 보내고 저탄소 생활 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주민 숙원사업 '월평도서관' 개관식

서구 주민의 지식·정보·문화의 공간으로 조성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7일 장종태 청장 및 주민과 국회의원, 도서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월평도서관 개관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한 월평도서관은 총사업비 98억 원을 투입, 한밭대로 664갈마(공용 내) 일원에 연면적 3,584.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녹색건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 서구에서 다섯 번째 공공도서관으로 문을 열었다. ▲(지하 1층) 주차장과 보존서

고 ▲(1층) 어린이 자료실과 유아실, 북카페 ▲(2층) 도서 정보실, 사무실 ▲(3층) 문화 교실, 열람실과 시청각실 등 복합적인 지식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도서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첨단 RFID 도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도서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도 도모시켰다. 18일부터 정상 운영되는 월평도서관은 휴관일인 매주 금요일과 국가 지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고 1개 도서관 회원증으로 대전지역 모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서구도서관 어디서나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도서관 운영 시간 이외에도 도서를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반납 서비스 등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더했다. 장종태 청장은 "서구의 5번째가 되는 월평도서관이 지역주민들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고, 상호대차 서비스와 책 읽어주기 등 독서·문화 육구를 충실시켜 지식정보 서비스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아파트 문화 조성 앞장

대덕구, 윤리의식 함양 및 안전사고 예방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17일 대덕문화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건강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했다. 이날 대덕구내 107개의 공동주택 단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의 효율적 운영, 동별

대표회의 투명운영 및 윤리의식 함양, 공동주택 내 범죄예방과 방범요령, 단지 내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 등에 대한 내용으로 4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 앞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공동주택 주거비용이 70%를 넘어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웃과의 소통과 배

려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공동체 문화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맑고 깨끗한 주거 문화를 조성하고 단지 내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줄여 나갈 것으로 함께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태선 기자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 이웃들에 선물 지원 유성구새마을부녀회(회장 김경옥) 산하 원신흥동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6일 오전 새마을지도자 15명이 70kg 떡국떡을 끓여 동행성복지센터를 찾은 주민들에게 선물하고, 차상위계층 20세대에 고추장, 김, 계란, 떡국떡을 지원했다. 최경해 회장은 "원신흥동이 살맛나는 지역으로 가는데 조금이나마 새마을이 도움이 되면 한다"고 전했다.

2019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유성구 우수아파트 6개소 선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지난 13일 2019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에 입상한 아파트 6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친환경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단지별 에너지 절약 활동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과 온실가스 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2017년 처음 실시했다. 구는 이번 경진대회 심사를 위해 아파트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 개인세대 가입건수, 전년도 대비 전기 및 수도 사용 절감률, 온실가스 가정진단 건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여부 등을 평가했다. 선정결과 ▲최우에 '송림마을4단지' ▲우수에 '도안후천시아4단지', '도안후천시아10단지'

▲장려에 '삼삼한울아파트', '도안6단지센트럴시티', '죽동푸르지오'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최우수아파트로 선정된 송림마을4단지(관리소장 신동국)는 탄소포인트제 가입률, 온실가스 절감 노력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 아파트에는 최우수 220만 원, 우수 150만 원, 장려 6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최우수아파트에는 현판도 수여될 예정이다. 조상화 환경과장은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은 공공기관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모금회, 대전교육청에 3억3천만원 전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기호 회장(오른쪽)이 지난 16일 사회적 배려 학생 생계비 지원을 위해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에게 3억 3천만원의 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 선정

동구, 신속·정확한 주민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19년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를 선정하고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 2일 이상 민원사무에 대해 업무처리 신속 유무를 점수로 평가하고 처리 건수, 난이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빠르고 정확한 고객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주무관과 환경과 김용호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아울러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제로 평가한 우수부서 선정에서는 83.5%를 나타낸 여성가족과가 최우수, 회계과와 보건소가 우수와 장려부서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 공직자와 부서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부식 행사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시상금을 함께 지급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동 정 ●
송년 기자회견



양승조 충남
도지사는 18일
오전 10시 30
분 도청 대회의
실에서 열리는
송년 기자회견
에 참석하고 오후 1시 상
황실502호에서 열리는
경력단
절여성 취업지원 MOC체결식에
참석하며 오후 3시 독립기념관
에서 열리는 3.1운동충남백년의
집 포럼에 참석한 후 오후 4시
40분 아산모나부르에서 열리는
2019 공동체 활성화 성과공유회
에 참석 오후 5시 30분 온양그랜드
드호텔에서 열리는 2019 하반기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다.

2019 여성회관 학습발표회



김석환 흥성군
수= 18일 오후
2시 흥성군
새마을회관에서
열리는 2019 여성회
관 학습발표회에 참석.

흥성군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교육과정 1기 수료



흥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한 도시
농업 전문가 양성교육과정 1기 수료
생 20명중 18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
격을 취득했다.
도시농업관리사는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배치되거나 농업
과 농촌 가치를 도시민에게 교육·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다.

이 자격증을 농화학,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
상 자격증 중 한 가지를 소지하고 도시
농업 육성법에 지정된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전문교육과정(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을 이수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daejeontoday.com

금산군 '국제적 건강도시' 육성

양승조 지사, 금산군 방문... 국제행사 유치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관 건립 등

충남도가 17일 금산군을 '국제
적 건강도시'로 육성·지원한다
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금산군을
방문해 이 같이 밝히고, 문정우 군
수와 '금산인삼·약초 세계화 및
명품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
성화를 이끌고, 인삼 종주국의 위
상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정책
협약을 맺었다.

도는 이를 위해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를 이끌고, 세계중요농업
유산 홍보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또 인삼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인·홍삼 제품 품질 표준화 등 지
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인삼·약초
식품산업 활성화를 이끈다는 계획
이다.

이밖에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인삼 생산·유통을 위해 ▲경작신
고 정착 ▲잔류농약 검사 강화 ▲



생산실명제 확산 ▲수삼 포장박스
킬러 차별화 등을 추진한다.
양승조 지사는 "금산은 고려인
삼을 처음 재배한 곳으로, 1500년
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근 인삼 소비량 감소와 중국과
캐나다 등에서 낮은 단가 공세 등
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위기
를 기회로 삼고 세계화·명품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흥성군 공리항 '어촌 뉴딜300' 사업 선정

2022년까지 150억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주민소득 창출기반 마련

흥성군은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뉴딜300' 사업에 서부면 공
리항이 최종 선정돼 150억 원을 투
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부면 공리 일원(하리마을, 공리
항) 전역에서 관광기반시설 구축
및 관광자원 개발, 주민소득 창출
기반 마련 등 5개 영역으로 특화돼
추진된다.

공리항 어촌 뉴딜사업의 큰 틀
은 주민, 지원기구, 중간지원조직
등을 내세운 거버넌스 구축과 지
역주민 주체의 관리 운영 방안 등
을 들 수 있다.

군은 공모 발표 시 천수만 관광

의 시작부로 유리한 관광 입지 여
건과 공리항 수산자원, 굴 축제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의 시너지 효
과, 공리항 어촌계, 귀어귀촌, 청년
회 등 다양한 어촌 공동체 조직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밝힌 어촌 뉴딜 300마스터
플랜은 공리 어울림 센터와 가로
등 방범 CCTV 설치, 주민편의 시
설 확충사업과 어선 여객선 접안
시설 설치 등 가두리 양식장 체험
조성, 천수만 놀거리 해상파크 조
성과 해변 조망 명소 조성을 위한
공리포구 명소화 사업이 포함됐
다.

또한 공리 해안가로 경관정비

사업, 바닷가 마을 커뮤니티 정원
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역량강
화,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호텔 운
영을 통한 소득창출 사업 등 마을
자생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리항을 천수만
관광중심지로 부상시켜 활력 넘치
는 어촌 마을로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어촌뉴딜300은 해수부가
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
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남
도내에서는 6개 시군이 선정됐
다.

김정환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 1조 2437억원 확보

예산군 역대 최대 규모
예산군이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
해 국비확보에 적극 추진한 결과
2020년 정부예산이 역대 최대 규
모인 1조 2437억원(국가시행 1조
598억원, 지방시행 1839억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20년이 총선과 민선7기
3년차 도래에 따른 지역발전에 대
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중요한 시
기인데 따라 확보한 정부예산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지원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규모 현안사업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주변 지역 발전전략 마련,
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시행사업
으로 ▲서해선복선전철건설사업
7103억원 ▲장항선복선전철건설
사업 350억원 ▲서부내륙고속도
로건설사업 2799억원 ▲고려지구
수리시설 등 11개보수사업 128억
원 등의 국비를 확보했다.

또한 내년도군의 자체시행사업
으로는 1839억원을 확보해 지난해
1377억원에 비해 492억원이 증가
했다.

황선봉 군수는 "지방재정력 강
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
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
각한다"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확보한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
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세종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토론회 노동기본권 향상·노동존중사회 실현

세종시는 세종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노동
전문가,노동계,기업,관계공무
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의 집단지성으
로 참신하면서도 체감도 높은
세종형 노동정책을 마련하고자
열린 이날 토론회는 노광표 한
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의 기조
발제, 분임토론,결과물 발표·
공유의 순으로 진행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지방정
부 노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노동이사제 도입과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과 경제
정책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분임토론은 ▲정규직
전환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집적 ▲노동시장 실태조사로
본 노동자 진짜 니즈(needs) ▲
안전사업장 맞춤형으로 만들기
▲통련하는 직장 말들의 별책
부록 ▲청년 취업 등이다.

토론주제는 세종형 노동정책
4대 중점추진방향 및 7대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시민제안 및
최근 노동시장 핵심이슈를 집
목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 분임토론에는 현
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비정
규직 근로자, 청년,경단녀, 장애
인 등이 참여했으며, 노·사·
민·정이 한 테이블에 곁고루
포함되도록 해 의견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시는 지난 8월 노사민정협의
회에서 세종형 노동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4대 중점 추
진방향을 마련하고, 10월 3주간
노동정책 시민 과제공모와 11
월 2차례 노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의 결과물
을 세종형 노동정책에 적극 반
영하고,내년 일터 내 '공정' 분
위기 확산을 위한 '공정일터 인
증제, 동기동맹'과 노동존중으
로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구 일자리정책과장은
"노동 기본권 향상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
부, 노동·경제계,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의 참여와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번 노동정책 토
론회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
의 인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군, 의회와 집행부 간상생 발전 노력 소통역량강화 교육

예산군은 16일 덕산면
스플라스 리솜에서 의회
와 집행부의 화합을 장인
'군의원과 간부공무원 소
통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교육기
관이 주관해 군의회 의원 및
간부공무원 52명을 대상으
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

응하고 군정업무 수행에 따
른 긴장을 해소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상생발전을 도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
다.

황선봉 군수는 "앞으로도
서로 화합해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예산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구기자

대전서구야구협회장기 2020년도 모집공고

협회장기 대회 개요

- 리그 : 2월중 개막
- ▶ 토요일리그 - 4부 A·B 조 (각 15개팀)
- ▶ 일요일리그 - 3부 (15개팀)
- 4부 A·B 조 (각 15개팀)

• 대회방식 ▶ 14경기- 정식기록/ 2심제

• 등록신청

- 게임원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 http://www.gameone.kr/league/?lig_idx=469 모집공고 댓글
-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감독·총무 밴드
- https://band.us/band/75708708 가입 모집공고 댓글
- 자료실"가입신청서" 작성 후 ktshmk@hanmail.net 으로 접수 바랍니다.

• 참가 신청

- 참가 우선순위 및 모집기간
- ▶ 1차모집 : 2019년 11월 20일 ~ 2019년 11월 30일까지
(기존 회원사 부터 우선 접수 받습니다.)
- ▶ 2차모집 : 2019년 12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선착순 우선순위)

• 사용구장

- 일반구장(갑천구장)
- 인조잔디병행(대전고등학교, 충남중학교, 한밭중학교)

• 문의전화

- ▶ 010-4442-7752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김태선 사무장)
- ▶ 010-2220-9968 (서구야구소프트볼협회 김형태 심판장)

(기타) 대회규정 및 대표자회의는 추후 공지합니다.



우리/동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

‘2019 생활SOC 우수사례’로 선정



가치있는 농업, 살아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 육성
2019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천안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수)는 16일 센터 대강당에서 가치있는 농업, 살아있는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육성하는 ‘2019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농촌지도사업 성과와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농촌지도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을 비롯한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관계공무원, 관심 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특별로 사업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을 했다. 참석자들은 식량작물, 농촌자원, 과수, 축산, 농기계 대역 등 10개 분야에 걸쳐 분야별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도출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을 함께 설계했다. 강성수 소장은 “오늘 평가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2020년도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시범사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홍보해 농민들에게 조기에 확대 보급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한국전문지도연구회 우수기관 선정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 주관 2019년 한국전문지도연구회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전문지도연구회는 농업 분야별 새로운 기술정보와 우수한 성과 등을 도출·공유하기 위해 농촌진흥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이다. 이번 평가는 적극적인 연구회 활동으로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발굴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기역량개발 참여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오이, 배 재배 관련 실증기술 발표 등 연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농촌진흥청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농촌진흥청 주관 ‘2019년 한국전문지도연구회 하반기 총회’에서 진행됐다. 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을 독려해 작목별 실용화 신기술의 조기 확산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업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전 직원 대상으로 실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

천안시는 지난 16일 시청 봉사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사단법인 한빛회 소속 김민주 장애인식개선 전문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김 강사는 중증장애를 가진 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교육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 또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의 현주소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 등을 상영하고, 찾아가는 행정 업무 추진 시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법과 제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장애인의 처지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며 “마음의 문턱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이 주관한 ‘2019년 생활SOC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조정실장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생활SOC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지방자치단체와 생활SOC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주제인 생활SOC 운영비 절감 우수사례와 신생활SOC 지역 참여 우수사례를 접수했다. 시는 아산시와 협력해 추진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예산절감 부문에서 우수한 사



례로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110억 원 운영비 절감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간 조합설립 ▲경계지역 생활권 내 도서관 조성 ▲방범, 교통, 정보시스템이 통합된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 ▲천안과 아산의 공동 운영 관리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생과 협력으로 천안과 아산 두 도시의 동반성장을 위해 건립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는 대지면적 1만3293㎡에 면적 9,45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천안시 서북구 공원으로 10월에 위치하고 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 임시 개장... 내년 초 정식 문 열어

오는 19일부터 임시 개장... 무료입장 행사개최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가 내년 초에 정식 문을 연다. 17일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내년 초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 정식 개장을 앞두고 오는 19일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시 개장 동안 무료입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스포츠센터의 미비한 사항을 점검하고 재정보조 2020년 정식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입장기간 중 이용 가능한 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족구장이다. 수영장은 50명, 헬스장은 30명 이하로 이용객 수를 제한해 선착순 발권으로 시범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2시간이다. 다목적체육관과 족구장은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상시 무료로 개방된다. 북부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할 천안시 북부스포츠센터(성환읍 성환1로 45)는 대지면적 3만 3231㎡, 연면적 4787㎡에 지하2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 종합체육·문화시설이다. 주요시설로는 최첨단장비를 구비한 헬스장과 50m 5레인 규모의 수영장, 충남권 공공기관 최초 플라잉요가와 번지퍼지오 강습이 가능한 다목적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실외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인조축구장이 있어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혜택 및 생활체육 인프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식 이사장은 “그동안 내부 시설 보강 등 마무리 작업을 거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천안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성환읍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우수사례 선정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우수사례

충남 천안시 성환읍 주민자치회가 충청남도 시행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019년 주민참여 혁신모델 인증제는 주민주도의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극복, 일자리 창출 시제 중 참신하고 성과가 우수하며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모델도 차원에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우수사례는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환읍 주민자치회와 부여군 양화면 송정리협력마을이 선정됐으며, 이들은 개소 당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성환읍 주민자치회는 ‘공모사업으로 주민참여를 이

끌다’라는 주제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올해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환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9월 4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으며,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더불어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부지개마을학교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성환읍 대흥2리, 이편한세상 아파트 등과 협업체 ‘대흥2리 마을정원 조성’, ‘마을이편한놀이터’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 천안에서는 성환읍을 비롯한 5개 읍면동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주민자치 실험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풀뿌리 자치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2년 연속 국제숙련도시시험 ‘우수’

국제숙련도시시험 ‘우수(Excelent)’ 성적 받아... 국제적 수질분석 능력 인정받아



천안시의 식수가 국제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소장 주성환) 수질검사소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국제숙련도시시험에서 ‘우수(Excellent)’ 성적을 받아 국제적으로 수질분석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험은 미국 시그마알드리치(SIGMA-ALDRICH, ISO 17025/17043 인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으로 미지(未知)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한다. 맑은물사업소 수질검사소는 지난 11월~12월 진행된 시험에서 먹는 물 분야 17개 항목에 참가해 전 항목 우수한 판정을 받아 수질분석의 신뢰성과 위상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했다. 17개 항목은 먹는 물 분야 ▲일반항목 -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불소, 황산이온, 시안, 페놀 ▲금속류 - 납, 비소, 카드뮴, 크롬,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 클로로포름, 벤젠, 브로모디클로로메탄 ▲유기물질 - 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이다. 수질검사소는

이 항목에 대한 숙련도 분석결과를 제출해 모두 ‘민족’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검사소는 지난 2004년부터 환경부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지정돼 15년간 천안시민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 고 있다. 이태석 급수과장은 “수질검사소가 국제적 수준 전문수질 시험분석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최적화된 분석 환경과 신뢰성 있는 분석능력을 유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수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여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남중학교, 인택훈 시스템(주)으로부터 장학금 기탁 받아 천남중학교(교장 허삼복)는 16일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용원리 소재의 자동차 부품제조회사인 인택훈 시스템 주식회사(대표 최창하)로부터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인택훈 시스템(주)은 품행이 바르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모범학생 10명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면학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기 위해 각 3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했다. 천안=이정복기자

동정

폐회식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 = 18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식에 참석.

업무협약식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 18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시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대학연계 장학사업 업무협약식에 참석.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
‘크리스마스인아트뮤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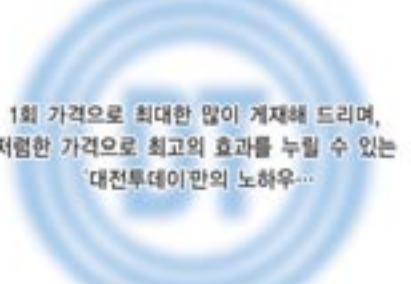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관장 임진배)은 12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18일 오후 2시 ‘크리스마스인아트뮤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12월 문화가 있는 날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키워드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상의 재료를 활용한 트리 꾸미기, 발자국 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준비됐다. 천안예술의전당미술관은 매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내년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옥 미술관장은 “이번 12월 문화행사를 통해 미술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사회복지시설에 1천만원 기탁



KEB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대표 민인홍)이 지난 16일 천안시청을 방문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했다. 기부된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인 익선원에 지정 기탁 된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은 기부금 전달 외에도 이날 익선원을 방문해 봉사활동도 펼쳤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논산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의사결정 훈련



공주소방서, 화재피해주민에 구호물품 전달



전통군경미망인회 대전시지부, '털모자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

세종시, 청년들에 행정업무 직접 경험 기회 제공

청년행정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세종시 동계 청년행정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년들에게 행정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참여자 25명을 1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주민등록상 본인의 주소가 세종시로 되어 있는 15~34세의 청년으로, 모집 대상은 중학교에서 청년으로 확대했다.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근무기간은 2020년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주 5일, 하루 8시간이며, 최저임금인 8,590원의 시급이 적용된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에 회원가입 후 할 수 있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 대변인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첨(참관 가능)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시청, 읍·면·동 및 소방서에 배치되어 행정업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보조한다.

발표는 2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과(044-300-3915)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은 "청년 행정인턴 사업을 통해 사회경험은 물론 청년들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

육군훈련소 지구병원 금연클리닉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지난 4월부터 금연집중지원부대인 육군훈련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은 건강관리협회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사전 선정한 금연집중지원부대에 지속적인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육군훈련소 금연클리닉은 규칙적 흡연습관이 형성되는 20세 전·후 군인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성공률을 높여 자발적인 건강생활실현을 유도한다. 금연클리닉은 개별 상담으로 운영되며 금연유지에 필요한 니코틴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제공한다.

김민수 부장은 "육군훈련소 금연클리닉은 현재 약 700여 명의 흡연 장병들이 등록했다"며 "금연실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클리닉을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국내 판매 주류 20개 중 1개 제품만 영양성분 표시

한국소비자원,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필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10.2L) 및 과음률(30.5%)은 세계 평균(6.4L, 18.2%)보다 높으나, 주류에 관한 영양 등 영양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섭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 맥주·소주·탁주 총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전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영양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주종 1병(캔)당 평균열량은 맥주(500ml 기준)가 236kcal였고 소주(360ml 기준) 408kcal, 탁주(750ml 기준) 372kcal로 소주·탁주의 경우 쌀밥 한 공기(200g) 열량(272kca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맥주 전 제품(10개)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주종별 알코올 도수는 표시대비 맥주가 평균 0.1도, 소주는 평균 0.25도 낮고 탁주는 평균 0.1도 높았으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으나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열량 등의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수입맥주 1개 제품에 불과했다. 또한 제품명에 '라이트'란 명칭을 사용한 국산 또는 수입맥주가 다수 판매되고 있으나, 기준이 되는 열량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가 열량을 알거나 낮춘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유럽연합 국

가의 마트에서 판매 중인 맥주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다수 제품이 열량을 포함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열량 등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을 고려한 주류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시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류 업체에 열량 및 영양성분의 자율표시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충남대, 지역 고등학교 위한 심리학 교실 연다

충남대학교 BK21 플러스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은 오는 21일(토) 오후 2시, 충남대 사회과학대학 하누리 강당에서 대전·충남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심리학 교실을 개최한다.

충남대 BK21 플러스 중독과 자기조절 사업팀, 충남대 심리 성장과 자기조절 센터, 충남대 심리학과, 한국도박문제관리대전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한국도박문제관리대전센터 김세진 센터장이 '중독과 자기조절'을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김세진 센터장은 청소년이 공감해 할 우리 주변 중독 문제를 살펴보고, 자기조절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중독에 취약해지기 쉬운 청소년 시기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고, 최근 대두되는 청소년 온라인 도박에 관한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세종시, 겨울철 건축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하기 취급하는 공정의 건축공사장 대상으로 시행

세종시는 겨울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화기를 취급하는 공정의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시는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건축안전자문단으로 점검반을 구성, 18일부터 내달 말까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항목은 ▲화기작업 전·후 안전조치사항 및 위험물 보관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분전함, 전선 등 전기안전 조치상태 ▲인화성 가스 및 액체 등 취급에 따른 폭발 위험 장소의 환기 실시 여부 ▲

화재·폭발 시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숙지여부 등 15개 항목이다. 김규범 지역건축안전센터장(건축과장 겸임)은 "겨울철 화재사고에 대비해 공사장의 위험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축관계자들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소방서, 블랙아이스 운전자 각별한 주의 당부

당진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낮아진 온도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위의 눈이나 습기가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블랙아이스가 깔린 도로의 체온저는 일반 도로 노면의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증가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기도 하다.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감속운전 및 차간거리 유지 ▲급제동, 급회전 금지 ▲차

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 꺾기 ▲주거적으로 타이어 마모 점검하기 등을 지켜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방어운전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문



우 손쉽게 파괴하여 열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설비이다.

한편,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규정 개정 이후에 따라 공동주택 3층 이상인 층의 배란다에 세대 간 대피를 위해 설치 의무화 되었으며 2006년 법의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등 화재 발생 시 연기가 화염 등으로 인해 출입문을 통해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복도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화재 발생 시 연기를 차단하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에 장애물을 쌓

아두거나 평소에 그 위치를 몰라 유사시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 피크그램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준환 예방교육팀장은 "피난구역에 장애물을 쌓아두지 않고 소화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작은 관심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킨다"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 사라져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으나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처리해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에 처음 번호를 부여한 읍면동의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고, 새터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모든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생년월일과 출신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

이정복기자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관계자 간담회

청양소방서,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관리 등 협조 당부



청양소방서(서장 류인희)는 17일 회의실에서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화재예방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겨울철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 백재문화체육센터 4층, 소방공사업자 3명, 소방공무원 3명이 참석해 가운데 겨울철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제로 회의가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건축공사장 화재예방 기본 수칙 ▲용접·용단작업 시 준수 수칙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시책과 유사 화재발생 사례 안내 ▲공사장 화

재예방을 위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기타 화재예방 등 협조건의 사항 수립 등이다. 향후 공사장 및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현장 지도감독과 신고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화재감시자 배치에 관한 권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백낙훈 현장대응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겨울철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 화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자원화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아산시 유기성폐자원 에너지자원화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바이오에너지팜(아산) (주)

직장인 절반이상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

(사람인) 조사결과...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첫번째로 꼽아

우리나라 직장인 10명 중 5명 이상이 현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455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4%)이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다.

결혼 여부별로 살펴보면, 미혼 응답자의 61%가 ‘행복하지 않다’고 답해 기혼 응답자(39.8%)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7.1%로 행복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54.5%), 40대(45.2%), 50대(42.7%)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의 삶이 행

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응답자들은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51.2%), 복수 응답률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45%), ‘현재 직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서’(35.4%), ‘생활이 불안정해서’(29.1%), ‘워라벨이 지켜지지 않아서’(24.8%), ‘건강이 좋지 않아서’(10.9%)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직장인들의 현재 행복 수준을 점수로 매기면 평균 59점으로 낙체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점’(18.2%)이 가장 많았고, ‘80점’(17.8%), ‘50점’(15.6%), ‘60점’(14.6%), ‘40점’(9.7%) 등

의 순이었다.

행복점수 역시 결혼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혼 응답자는 64점인 반면, 미혼 응답자는 54점으로 10점이 낮았다. 또, 20대가 평균 57점으로 가장 낮았고, 30대(58점), 40대(61점), 50대(62점) 순으로 집계돼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 행복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가장 많은 735%(복수응답)가 ‘경제적인 여유’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건강’(50.6%), ‘안정적인 생활’(48%), ‘원하는 일, 직무’(38.9%), ‘화목한 가정’(34.4%),

‘워라벨’(33.4%), ‘보람 및 성취감’(33.2%) 등을 꼽았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 실제로 갖추고 있는 조건의 비율은 49%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 1명 중 8명(78.6%)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갖추지 못할 것 같은 행복 조건이 있다고 답했다. 해당 조건으로는 ‘경제적인 여유’(58.7%), 복수응답률 첫 번째로 꼽았으며, 이어 ‘원하는 일, 직무’(18.6%), ‘정신적인 건강’(17.4%), ‘신체적인 건강’(13.5%), ‘안정적인 생활’(12%) 등을 갖추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정복기자

서산 부춘초, 행자부 장관 표창 수상

2019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관 선정



서산 부춘초(교장 성기동)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9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도로명주소 활용 우수기관 표창은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교육,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 등 실적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부춘초는 학교 교육활동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홍보, 사용하고 있으며 학년성에 맞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현장체험학습,

역사탐방, 수학여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내면화하는 교육활동을 실시해왔다.

성기동 교장은 “도로명주소는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드론, 사물인터넷같은 도시구조와 미래사회의 4차산업에 대응하는 힘을 길러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교육과 활용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전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보고회 개최

‘직업계고 국외취업에 날개를 달다’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직업계고! 세계를 향한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2019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성과보고회’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회는 2019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단 39명의 학생을 비롯한 참가 희망학생, 학부모,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조리 분야 실습에 참여한 유성생명과학고 정우준 학생 등 8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현장학습 체험수기 및 국외 취업 계획을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으며, 참석한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올해 대전교육청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지난 9월 16일부터 12월 8일까지 3개월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조리, 건축터일, 용접, 자동차 정비, 뷰티(헤어), 전자, 전공서비스 등 7개 분야 3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호주에서 영어교육 5주, 직무교육 3주, 현장실습 4주 전과정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호주에 취업할 예정이다.

대전교육청 정책과 과학직업정보과장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2018년까지 교육부 공모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연계형 최우수 모델로 인정받고 직업계고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세종시교육청,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 공동 연수 실시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종교육원에서 충청권 교육청 감사담당공무원들이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뜻을 함께 하고 충청권 교육청 자체감사기구 공동연수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청권 교육청은 지난 2016년 5월 ‘충

특히, 충청권 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에 연 2회 실시했던 교차 감사를 2019년에는 연 3회로 확대하는 등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감사관도 고쳐하여 감사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충청권 교육청은 2020년에도 교육청별 교차감사를 3회 실시하는 데 합의를 하고, 반부패 청렴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으로 협력하고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4년간 충청권 시·도교육청은 상호 간에 정보를 활발히 교류하며 감사업무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면서 “앞으로도 감사정보 교류 및 반부패 청렴업무 협업을 추진하며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청양교육지원청 ‘하루 동안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비전 캠프’

내 꿈을 찾아 떠나는 신나는 진로비전 캠프 운영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기)은 지난 16일 청양고등학교와 정산고등학교에서 청양관내 고등학교 학생회 임원 및 차관급자들이 진로 비전 캠프를 통해 가치관과 비전 부재로 인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설정하고자 ‘하루 동안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비전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의 주요 내용은 진로 비전스쿨 운영으로 구체적인 글쓰기와 비전으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학습스킬 습득으로 학습 효능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깊은 생각과 발표를 통해 한층 성장하는 기회가 되

었다.”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캠프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고 말했다.

청양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캠프를 마지막으로 2019년 초·중·고등학교 비전, 리더십, 진로캠프운영을 마무리하고 학생들이 2020년과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며 “2020년에는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해 리더십캠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캠프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삼범기자



천안교육지원청, 2020 천안

교육 주요업무계획 워크숍

천안교육지원청이 2020년 천안교육 주요 업무계획 워크숍을 가졌다. 지난 17일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천안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1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천안교육 주요업무계획 공유와 토의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의 중점정책과 달린 사업 추진에 대한 공유로 학교교육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집단지성을 통한 교육지원청과 학교 간 소통과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첫 시간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민주시민 교육, 진로교육,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학교자치 지원 교육행정 등 2020학년도 5대 주요정책과 3대 중점사업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교육지원청 각 부서 과장들의 안내와 질의·응답시간이 있었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원)장들은 이어서 학교 급별 4-5개의 모듈로 나뉘어 2020 주요업무추진 계획 관련 학교경영 착안점을 논의하며, 학교교육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2020 천안교육의 중점사업인 기초학력 향상, 책 읽는 학교·가정·직장·책 읽는 문화도시 천안(교육), 원도심 학교부설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천안=이정복기자

서면초, 몸도 마음도

녹이는 작은 음악회 열려

서천 서면초등학교(교장 김진철)는 지난 16일 서천팔호모노메스트라 공연을 실시하여 몸도 마음도 녹이는 ‘작은 음악회’를 가졌다.

서면 교육 가족과 서면 지역 어르신, 서면중학교 진교생이 함께한 공연에서 과수원길, 대곡 연주 위낭소리, 가야금 연주 도라지 변주곡 등 서양음악과 국악의 앙상블을 비롯하여 주옥같은 곡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했다.

특히, 서면초등학교 학생이 정성껏 준비한 오카리나 협연과 합창은 또다른 감동을 줬다.

김 교장은 “서면초에서 매년 실시하는 작은 음악회는 학생들의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한편 참석하신 지역 어르신들을 초대해 공연도 보는 한편,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을 위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의미가 더욱 크다. 앞으로도 작은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음악회의 의미를 밝혔다.



서천교육지원청, 맞춤형 고교 진로진학 설명회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정태오)이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등학교 진로진학 설명회를 가졌다. 관내 9개 고등학교 진로진학담당교사가 5일 간에 걸쳐 관내 9개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세분화·변화되는 대입제도와 고등학교선택 방법 등 미리 알아보는 맞춤형 고입진학설명회를 진행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 2019 영재교육원 수료식

논산계룡교육지원청영재교육원(원장유미선)은 14일 건양대학교 경성학관에서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학년도 영재교육원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자는 117명(초5과제 38명, 초6과제 39명, 중1과제 20명, 중2과제 20명)이다.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 이웃사랑 실천 위한 책 나눔 봉사활동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원장박정숙)은 17일 외국어교육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도서 기부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책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책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약 400여권의 책을 공주에 있는 상생발전 작은도서관에 전달해 청소년과 학생들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하이마트 사뮈데봉사단, 찾아가는 신타 봉사활동

롯데하이마트 사뮈데봉사단 충청지사는 지난 16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선진)과 함께 찾아가는 신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전국 400여개 매장이 12월 한달간 릴레이로 전국 2개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다양한 연말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50억 투자한다

당진시, 계속사업 3개·10신규사업 4개 등 2020년 국·도비 32억 확보

당진시가 2020년에 50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에 계속사업 3개, 신규사업 4개 등 모두 7개 사업이 선정돼 단일 일자리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국비 23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은 관행적인 국고보조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상향식' 일자리 프로젝트이며, 사업은 지역정책지원형과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민간 취업 연계형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당진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3억 원 외에 충남도가 지원하는 도비 9억 원에 시비를 더해 총 50억 5000만 원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

업에 투입하며, 이는 올해 21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확보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역정책지원형 5개 사업에 43억 8000만 원, 민간 취업 연계형 2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이 투입된다. 당진시는 지역정책지원형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참여자

를 모집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며, 민간 취업 연계형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력개발을 위해 모두 시·군·구 일자리로 편성, 육아와 가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정책지원형 5개 사업과 민간 취업 연계형 2개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상 규모는 약 220명 수준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퍼스트운동으로 대도약 선언

2020년 주요업무 보고회·군민 협치행정 실현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16일 상항실에서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지역을 중심으로 대도약을 도모하는 청양퍼스트운동을 선언했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각종 공모사업 36건을 유치하면서 사업비 1,502억원을 확보한 청양군이 예산역량을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컸다. 특히 시는 지역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청양퍼스트운동(가칭)'을 비롯 쌍방향 국정 소통 및 참여 강화, 복지와 농업을 결합한 신개념 농촌환경 조성, 공동체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구현, 신규산업 단지 조성 등을 통한 젊은 지역경제 조성, 지역 발전을 선도할 문화·관광·휴양 도시 건설을 내년도 주요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돈곤 군수는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결실을 거둔 공직자들에게 군민을 대신해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내년은 청양발전의 밑거름에 채색을 시작하는 해로 공직자들의 열의와 헌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식약청 'HACCP 멘토링 스쿨' 운영 식품산업 분야 대학생 대상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관내 식품등 관련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18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중북 청주 소재)에서 'HACCP 멘토링 스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혁신 역점 과제인 '적극행정 실시'를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지원)의 HACCP 지도관과 함께 HACCP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HACCP 관리 기준서 작성 및 현장 적용 방법 설명 ▲제품별 위해요소 분석, CCP결정, 모니터링 방법 및 검증 등 HACCP 운영 교육 ▲HACCP 체질관 견학 등이 진행된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식품등 분야 전문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협력해 실용성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공주시 맞춤형 정책 수립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전수조사 실시

정책 민족도 '밤마실 야시장' 1위...주차환경 개선 가장 필요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지난 16일, 관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충청지방통계청이 실시한 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사는 민선자치체 들어 처음 실시된 것으로, 산성전통시장 529개소와 상점가 403개소, 유구전통시장 49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사업체 일반현황(13개) ▲사업체 경영현황(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설문(4개) 등 총 3개 부문 26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시장별 업종별 사업체는 총 813개로 도매 및 소매업이 41.4% 50.9%

차지했으며, 개인화재 보험 가입율은 53%, 상인회 가입율은 55.6%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액은 전통시장의 경우 1억 1400만 원, 상점가 1억 9600만 원으로 분석됐고, 거래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47.8%, 현금 47%, 온누리상품권 4.2%를 차지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예로사항으로는 온라인쇼핑 등으로 인한 상권 약화를 1위로 꼽았다. 전통시장의 주 고객층은 60대 이상이 47%, 산성시장 상점가는 40세 이상 ~ 60세 미만 고객층이 44%를 차지했다. 정책 민족도 부문에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40% 이상이 '밤마실 야시장'을 선호했으며, 이는 이용객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빈 점포 활용과 토요일 등 광장조성,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공주페이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립해 시장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이달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조종범 기획담당관은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시책을 수립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풍요로운 상생경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청소년아우터치 큰 호응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정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여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부여 관내 석양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 지역아동센터 1곳 등 위기(가정)청소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안전망인 '찾아가는 아우터치 산타가 찾아왔어요'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는 행사로 학교 및 가정으로 찾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물품을 전달했으며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A학교 교사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위기(가정)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12월 연말에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준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정)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타 관련 문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836-1898로 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사무원 이상규 대표이사·대창식품 정현택 대표이사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사무원 이상규 대표이사과 ㈜대창식품 정현택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원엔 전통식품 제조의 외길을 개척해 2019년 수출 500만불을 달성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前)류의 품질 유지 및 생산량 확대를 위해 '대형 전류 제조장치'를 자사에서 직접 개발해 가공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수작업으로 생산하는 타사와는 다르게 전(全)공정의 90%가 자동

화 되어 있다. 특히 지난 4월 음성군-씨제이켈스케이(주)와 투자협약을 체결, 2024년까지 총 494억원을 투자해 2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우리경제에 기여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56회 무역의 날(12.5)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창식품은 업계 최초로 돌김을 상표화 시켜 돌김의 우수성을 전국 각지에 알린 기업으로 2016년 2천만불 수출탑, 2018년 3천만불 수출탑을 달성했다. 해외 시장의 동향과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김을 연구·개발해 김치, 녹차, 와

사비 등을 첨가한 다양한 조미김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달의 무역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 대창식품은 전남지역 우수 수출중소기업으로 '중국 수출입상품 교역회'에 참가해 132만 달러의 MOU를 체결했으며, 이는 전남지역 참가기업 중 가장 높은 성과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 청년은 물론 다문화사각 여성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아너소사이어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50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사회적 책임에도 앞장서고 있다. 송병배기자



아산시 상·하수도 요금 단계적 인상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정부의 상·하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 운영' 계획에 따라 ▲2020년 상수도 6%, 하수도 45% ▲2021년 상수도 5%, 하수도 15%, ▲2022년 상수도 5%, 하수도 15%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18년 지방직영기업 요금현실화를 전국평균은 상수도의 경우 평균원가가 874.9원에 평균요금 714.2원으로 현실화율이 81.6%이고, 하수도는 평균원가가 1138.2원에 평균요금 567.8원으로 현실화율이 49.9%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수도관 교체 및 상수도시설 확충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개선 및 신기술 투자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번 인상으로 가정용은 월 20t 사용시 2020년 상수도 12,600원, 하수도 8,880원 ▲2021년 상수도 13,200원, 하수

'한산모시관' 겨울이야기 행사 열려

서천군, 한산모시 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 마련

서천군(군수 노박래) 한산모시관은 지난 14일 '한산모시관 겨울이야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부모와 함께 겨울철 세시풍속 놀이'라는 주제로 40여 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한산모시 소원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겨울철 전통놀이인 연을 만들어 소원을 적은 연교리

를 달아 날려보고, 겨울철 세시풍속인 동지팍죽을 체험한 후 모시옷 차를 마시며 전통 예절을 배우고 공예공방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추후 한산모시관 겨울이야기 2탄이 내년 1월 8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부모와 함께 전통 연을 만들어 바다분수 광장에서 직접 날려보고, 조랭이떡을 만들

어 조청과 함께 먹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참가자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선착순 30명으로 오는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모집하며, 신청 방법은 한산모시관(041-951-4100)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한산모시·소곡주 산업관광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한산모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산모시관은 문화부·한국관광공사의 '2019년 가볼 만한 산업관광지 20선'에 선정된 바 있다. 송병배기자



한타동그라미봉사단, 연탄나눔 봉사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동그라미봉사단이 지난 16일 대전시 대덕구 일원 소재 계층 7개 가정에 총 1500여 개의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호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려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부암로 25-26 대전투데이 7층
www.daejeontoday.com

우리/동/네

치매어르신 후견인 3명 선임

당진시, 치매 어르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당진시 치매안심센터는 17일 공공 후견심판 청구를 통해 3명의 공공후견인 후보자가 법원의 인용을 받아 본격적인 후견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제도는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선임된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6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지난해부터 치매환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당진시는 치매 공공 후견제도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올해 3월과 4월 지역 내 74곳의 요양시설과 행정·보건기관에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피후견인 추천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후견인 발굴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 채용을 실시했으며, 내부역량강화 교육과 40시간의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도 진행했다.

이후 당진시는 피후견인(치매어르신) 대상자의 후견 필요성 여부와 후견 유형 결정, 후견인 후보자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모두 3명에 대한 후견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3명의 피후견인(치매어르신)이 공공후견인을 통해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통장 등 재산관리 ▲각종 서류 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공공 후견사업이 치매 어르신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시 읍내주공아파트 LED교체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에너지복지 확대를 위한 아산읍내주공아파트 1,223세대 LED교체사업을 완료해 12월부터 주민에너지 복지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시범사업'에서 아산읍내주공아파트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LED교체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LED교체사업은 나충남지역본부에 위탁 추진 했으며 국비 5억3천8백만원, LH공사 협력사업비 2억3천만원을 포함 총 7억6천8백만원이 투입돼 전체 1,223세대 중 기 설치 가구를 제외한 1,181세대 조명등 교체공사를 지난 11월 완료했다.

아산읍내주공아파트 주민들은 12월부터 기존 노후 형광등과 백열등 대신 고효율 LED조명등을 사용하게 됐다.

이를 통해 기존 전력사용량의 54.5%에 달하는 연간 449,966kWh(약 41,982천원)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소방서 동절기 축사화재예방 당부

태안소방서(서장 김경호)는 겨울철 건조하고 추운 날씨로 축사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축사시설은 노후된 전기시설, 난방기 등 전기기가 많이 소요되는 전열기구 사용, 온풍기 과부하로 인하여 화재 위험성이 높아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축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기시설, 보온·난방 기구 과열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등 비치 ▲용접·절단 작업 시 주변 가연물 제거 및 소화대책 마련 후 작업 ▲축사 인근 쓰레기 소각 등 화기취급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소방서는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안전대책회의,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경호 소방서장은 "소방서에서는 축사 화재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축사 관계자들도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로 화재 예방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안=김정환기자

'태안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맞손

태안군, 충남연구원. 정책탐방·현안과제 토론 통해 신해양산업 방향 제시

태안군과 충남연구원이 태안 미래 성장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힘을 합쳤다.

군은 지난 16일 충남연구원(원장 윤환) 관계자 및 군 관련 실·과장, 군정자문교수단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충남연구원 정책탐방 및 토론회'를 실시했다.

'충남연구원'은 도내 대표적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그동안 태안의 관광·도시개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과제 조사·분석 등 연구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이날 오전 군과 충남연구원 관계자들은 안흥 내·외항을 찾아 군 사업현황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태안군 신해양



토론회에서는 김종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태안군 신해양

도시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으며, 군은 ▲인구정책방안(여성·청소년정책) ▲스마트경제 ▲인공지능과 태안군의 비전에 대해 발표하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생태환경·농축농업·해양수산·재난재해·교통물류와 관련한 군정자문교수 5명이 추가로 위촉돼 앞으로 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힘을 더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탐방과 토론회를 통해 충남연구원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해양관광 사업 등 태안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제28호 당찬 사람들에 이아남 씨 선정

중국어 강사로 당진서 제2의 인생

당진시가 제28호 당찬 사람들에 중국 북부 흑룡강성 하얼빈이 고향인 중국어 강사 이아남 씨(41세)를 올해 마지막으로 당찬 사람들에 선정했다.

하얼빈에 파견 중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후 2012년부터 당진에서 살아오고 있는 이아남 강사는 당진 사람들이 '정(情)'이 참 많다고 표현한다.

그녀가 낯선 타지에서 고향을 떠난 외로움을 극복하고 당진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녀의 정공법이 통했기 때문이다.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영어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당진교육지원청을 찾았고 마침 중국어 강좌가 개설돼 모국어인 중국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 중국의 역사와 풍습까지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강의적인 수업방식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중국어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현재 학생 외에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 강의에도 나서고 있는 그녀는 한중 번역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멈추지 않는 도전과 자기개발을 이어가며 수업



을 받는 수강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제2의 고향이자 기회의 도시가 된 당진에서 중국어 강사의 꿈을

이뤄가고 있는 이아남 씨의 당찬 스토리는 당진시 공식 블로그와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김돈곤 군수 '청소 군수' 약속 지켰다

처양군, 충청남도 시·군 평가 자원순환 최우수기관 선정

청양군이 자원순환에 대한 충청남도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김돈곤 청양군수가 "군민 건강과 정주환경 개선, 자원순환을 위한 청소 군수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지난해 우수기관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청소행정 분야 정책 능력을 검증 받았으며, 전국 지자체 대상 순환자원정보센터 활성화 경진대회, 자원순환 평가, 폐전자 집중수거, 공중화장실 관리 등 4개 분야에서도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군은 특히, 전국적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영농폐기물 무상 수거부터 장비구비 만들기 등을 통한 1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수집 등네마당 설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김돈곤 군수는 "모든 평가 결과의 주인공은 바로 군민"이라며 "군민 참여와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 기자



신창면 희망 나눔 모금 행사 가져

아산시 신창면행정복지센터(면장 김경식)는 지난 16일, 센터 1층 로비에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실시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웃돕기 성금 집중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성금모금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의 소중한 저금통부터 이장협의회,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노인회, 관내 기업체 등이 참여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이 심시일

반 뜻을 모아 훈훈하고 정성 어린 소중한 성금을 모았다.

김경식 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부터 노인, 기업체 등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성금에 감사하고, 이 성금이 어려운 이웃에 잘 쓰일 수 있어 행복하다"며, "남체 등이 참여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이 심시일

다.

한편, 신창면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 집중모금 행사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기업체는 신창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041-537-3135)으로 문의하거나 성금 모금 기간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이동빨래방' 운영

청남면여성봉사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청양군 청남면여성봉사회(회장 윤수옥)는 지난 16일 면내 장애인 기구물 대상으로 이동빨래방을 운영했다.

이날 회원들은 천내리의 한 거동 불편 어르신 집을 방문해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침실과 주방, 거실 등 집안정소는 물론 옷장 정리

와 세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윤수옥 회장은 "매달 두 번 빠지지 않고 어려운 주민들을 돕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지역 가꾸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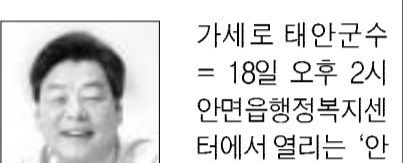
동정

진상향보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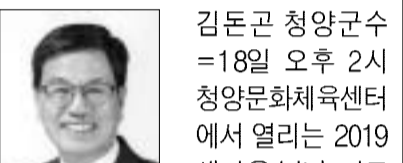
김홍장 당진시장 = 18일 오전 10시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9 당진시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 오후 2시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하반기 직무성과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주재.

주민행복지수 향상교육



가새로 태안군수 = 18일 오후 2시 안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안면읍 지역사회협업체제 주민행복지수 향상교육'에 참석

경진대회



김돈곤 청양군수 = 18일 오후 2시 청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2019 새마을 남녀 지도자 경진대회에 참석.



태안군청 신규 공무원 '사랑의 간식' 봉사활동

태안군이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이웃의 소중함과 나눔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군에 따르면 올해 10월 임용된 태안군청 신규 공무원 33명이 지난 16일 군자원봉사센터 3층 조리실에서 모여 떡갈비, 감자크로켓 등의 간식을 만들어 관내 한부모·조손가정 학생 60명에게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최미나 주무관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보람찼다"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군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복(慎福)의 정신을 맘에 깊이 새겨 항상 정령하고 겸손한 자세로 군민을 섬기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군 자원봉사센터가 간식재료를 준비했으며, 김성조 요리사는 요리 강습재능기부를 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온양3동 행복키움 12월 정기회의 실시

아산시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형관)는 지난 16일, 행복키움추진단(민간 단장 홍연순 공공담당 김형관) 정기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는 사례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정기회의를 통해 7대 임원진 선출, 구성의 안전으로 사례관리 대상자의료비지원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결정했고 7대 단장으로는 박충서 단장, 감사에 이경희(전 추무가 선출됐으며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 등 새로운 임원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7대 박충서 단장은 인사말 "홍연순 단장님의 노고 감사드리며 그동안 많은 업적으로 온양3동이 민관협력과 나눔 활동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누가 되지 않고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행복키움추진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에도 힘찬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논산 자원봉사자 한마당축제 열려

자원봉사자·봉사단체 노고 치하...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부여군, 사회참여 활성화·노후생활 안정 지원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희망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각 수행기관에서 모집한다.

군은 2020년 모두 3,462명의 어르신들에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도 관련예산은 2019년 예산 93억원에 비해 24억원이 증액된 117억 원이며 참여자 수도 3,039명에서 4,237명이 증가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별 모집인원은 공익활동 2,860명, 시장형 354명, 사회서비스형 143명, 취업 일선형 10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자는 만 65세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건강하고 어르신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참여자 선발 기준은 소득 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 등에 따라 선발된다. 사업기간은 평균 11개월로 주3일(월 30시간)을 근무해 월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급, 인지지원등급), 그리고 정부부처나 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타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여러 일자리들을 폭넓게 발굴하여 지원 폭을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디자인단 발대식 갖고 활동

서천군, 생활 속 불편사항 및 난제(難題) 등 해결 기대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6일 종합교육센터 3층 강의실에서 노박래 서천군수를 비롯한 서비스디자이너, 전문가, 지역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디자인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임명장 수여 및 축사, 이더현 서비스디자이너의 국민디자인단의 역할 등 기본 교육, 국민디자인단 추진과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국민디자인단 추진과제는 지난 9월 9일 주민자치위원회 원탁회의를 통해 발굴된 10개 과제에 대해 지난달 20일까지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회를 통해 최종 환경 분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부여군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주일간 진행된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가한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13개 시·도, 164개 시·군·구) 및 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부여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는 전국적으로 총 705개 기관이 훈련을 실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이 중 평가대상인 242개 기관에 대한 사전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종합해서 최종 선정하였다.

부여군은 이번 훈련에서 현장 중점훈련으로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에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과 산발발생 등 복합재난을 가정하여 토론회훈련 및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 들어 지진 대피훈련, 청사 불시화재 대피훈련,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화재 대피훈련 등 재난대응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유관기관 및 여러 단체와 군민 등 200여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 이룬 성과로서 앞으로도 군민들과 함께 안전한 세계유산 도시 부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논산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운진)는 지난 16일 더행복한 웨딩홀에서 자원봉사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자원봉사자 한마당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소통과 화합의 뜻을 나누고자 마련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김진호 논산시의회회의장 및 시 의원들도 함께 자리해 따뜻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봉사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센터 사업홍보 및 활동영상 시청에 이어 한 해 동안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펼친 우수



봉사단체 및 봉사자 35명에 대한 선물이 주어졌다. 또, 방승인 선을 초청해 '지금은

선물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 봉사활동의 의미와 작은 실천으로부터 함께 나누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동네심썬츠의 신나는 공연으로 참석자 전원이 서로를 격려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김운진 센터장은 대회사에서 "1년간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마음으로 따뜻함을 전해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과 단체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명선 논산시장 역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며 희생과 배려의 가치를 실천하고 나누는 봉사자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며 "은정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논산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중장년층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계룡시, 양질의 일자리로 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룡시는 어려운 경기여건을 극복하고 좋은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중장년층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근로사업 45개 분야 142명 ▲중장년층 일자리사업 24개 분야 77명 등 총 69개 분야 219명을 모집해 내년 2월 3일부터 6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모집인원은 올해 상반기 사업 인원보다 10명 증원된 규모로, 2020계통세계군문화엑스포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위한 인력을 보강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계룡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주민으로 오는 26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시간은 사업 분야 및 연령에 따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상이하며, 임금은 시간당 8,590원과 교통비, 주·월차 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시는 선발기준에 따라 재산 및 소득, 참여횟수 등을 조화해 참여자를 선발하고, 사업 인연미달 및 결원 발생 시 추가 모집없이 후순위를 대상으로 총원할 예정이다. 또 선발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참여자의 희망사업 분야에 우선 배치해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사업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042-840-250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년도 일자리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천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회 열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담당 팀장, 송금영 충청지방 일군청 대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 담당 팀장, 송금영 충청지방

운데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군은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을 통해 서천군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삶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해 청년·일자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개발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사는 충청지방통계청 주관, 서천군 내 거주하는 만 15세~39세 중 표본으로 추출된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식 방법으로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건강, 문화와 여

논산시 '청소년 송년콘서트' 열려

아스트로·오마이걸·기리보이&키드밀리·케이시 등 출연

청소년행복특별시 논산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뜨거운 열정의 무대가 펼쳐진다.

논산시시정 황명선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은 오는 19일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2019 논산시 청소년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있는 송년콘서트는 관내 27개 중·고등학교 7,0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할 예정으로, 올해 5년치를 맞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다.

인기아이돌 아스트로, 오마이걸, 기리보이&키드밀리, 케이시, 횡문이와 대준이 등이 출연해 열정 가득한 무대를 선보이는 것은 물론 출연진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깜짝 이벤트 등으로 청소년에게 잊지못

할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청소년 송년콘서트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공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가, 삶의 질, 노동, 일자리 등 11개 분야 57개 항목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충청지방통계청은 주거와 교통, 가족, 교육 등 정책 연계방안에 따른 조사결과 분석 자료를 보고했으며, 12월 말 조사결과 공표와 보고서 발간을 통해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 활용 사례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기(3년에 맞는 통계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계청과 군의 협력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분야별 결과를 청년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인 대응방안, 서천군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계룡시 희망복지나눔봉사단 "후원의 밤" 행사 열려

강행자 단장은 "내년에는 봉사단의 경험과 역량을 심본 발휘해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시 희망복지나눔봉사단 단장 강행자는 16일 관내 음식점에서 봉사단원, 학생,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의 "2019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 봉사단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을 축하하고, 내년에는 봉사단의 경험과 역량을 심본 발휘해 지역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정숙 사회복지과장은 "희망복지나눔봉사단이 우리시 자원봉사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해 오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며 "경자년 새해에도 우리시를 밝고 따뜻한 사회로 가꾸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희망복지나눔봉사단은 계룡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찾아가는 마을잔치' 반찬 만들기, 가로수 옷뜨기, 이·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통정

희망지피기사업 유공자표창

최홍목 계룡시장= 18일 오전 10시 계룡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13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희망지피기사업 유공자표창

지할한미당대회

노박래 서천군수= 18일 오전 11시 청담웨딩홀에서 열리는 제12회 서천 자할한미당 대회에 참석.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

박정현 부여군수= 18일 오후 3시 부여 여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 의식개혁운동 우수실천사례 발표대회에 참석.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워크숍 실시



서천 생태관광 활성화 위한 콘텐츠 개발 노력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6일 자연환경해설사 23명을 대상으로 안전생태학습장에서 2차 역량강화워크숍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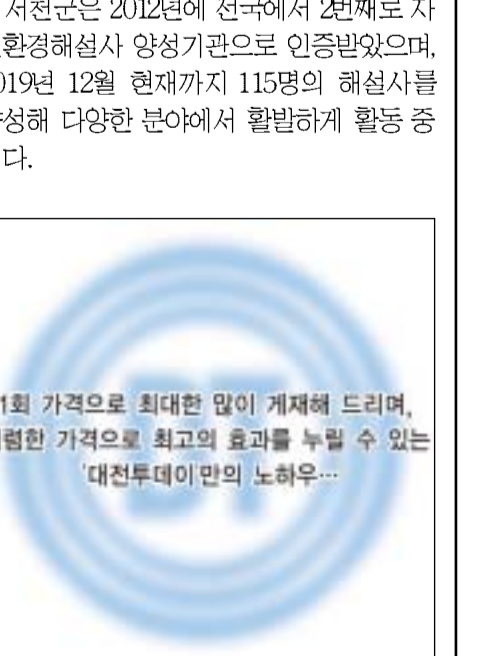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서천군과 유사한 갯벌생태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생태학습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해설사와 교류하는 시간으로 시작됐다.

또한 (사)한국생태관광협회 제종길 회장으로 부터 '지역의 특산물과 생태를 결합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고, 사회적협동조합 세움의 박근승 이사과 함께 서천군 생태교육 발전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0월에 실시한 1차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의 연장선으로 타지역 현장을 견학하며 서천군 생태교육에 적용점을 찾는 시간이 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해설사는 "지난 역량강화교육을 함께 했던 강사님과 또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론적 교육을 넘어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새로운 자극과 도전이 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동순 서천군 관광축제과장은 "이번 워크숍이 지난번 교육과 연계되어 참여자들의 호응이 좋았고 추후에도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서천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은 2012년에 전국에서 2번째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인증받았으며, 2019년 12월 현재까지 115명의 해설사를 양성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통정

제58차 정례브리핑 실시



김정섭 공주시장= 18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실에서 제58차 정례브리핑을 실시한다.

자립생활협회 송년음악회



김동일 보령시장= 18일 오전 11시 노블리안웨딩홀에서 열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협회 송년음악회, 낮 12시 남곡2동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1사1촌 자매결연식,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시청모니터 연찬회, 오후 4시 30분 비체펠리스에서 열리는 2019년 만세보령 마을대상 참석.

산타원정대 후원금 기탁식



맹정호 서산시장은 18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산타원정대 후원금 기탁식에 참석, 오전 11시 서산노인대학에서 열리는 서산시 노인대학 종강식에 참석, 오후 2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희망 2020 나눔캠페인 집중모금행사에 참석,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산시 지역역량강화 경진대회에 참석, 오후 6시 30분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교육가족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



문정우 금산군수는 18일 오전 10시 금산군청 군수실에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유물 기증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

우리 역사 찾기 연합축제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은 18일 오전 9시에 보령 관내에서 열리는 보령시 학교장·학교운영위원장 봉사활동 및 협의회에 참석하며, 오후 3시에 보령 관내에 보배스레 교육전문직 학습공동체 워크숍에 참석하며, 오후 6시에 대전체육관에서 열리는 보령학생연합회 우리 역사 찾기 연합축회에 참석.

금산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 새 출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단장 한성국)은 지난 16일 금산군청을 방문해 문정우 금산군수 및 관계자와 '희망2020 나눔 캠페인' 모금 활동에 관한 논의를 했다. 2012년 5월 발족한 '사랑의 열매 나눔 봉사단'은 지난 달 새롭게 위촉된 한성국 단장을 중심으로 17명의 단원들이 모여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을 지원하는 등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성국 단장은 "앞으로 단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의 풀뿌리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봉사단의 활동이 무척 기대된다"며 "19일에 열리는 '희망2020 나눔 캠페인' 순회모금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공주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 박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난 16일 여성가족부에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신규 지정됐다. 이번 결과는 시가 지난 8월 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이후 서면심사를 비롯한 사업계획 발표 등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지자체를 선정,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한다. 시는 민선 7기부터 ▲전 직원 여성친화도시 이해 교육 ▲여성친화도시 TF팀 운영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집중 워크숍 개최 ▲여

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추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왔으며, 시 최초로 '성인지 통계'를 발간해 여성친화 및 성 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틀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 5년간 248억 원을 투자해 5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내년 초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시민의 삶이 행복한 신바람 나는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몰입한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력단절여성 지역 맞춤형 창업 지원 ▲여성 안심 주거지역 조성 ▲여성가족부립문화센터 건립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사업 등 일상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여성친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공주시 전 구성원의 마음을 모아 노력한 결과로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계기로 여성과 남성, 사회적 약자 모두가 행복한 성 평등 공주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연말 소외된 주민 없도록 살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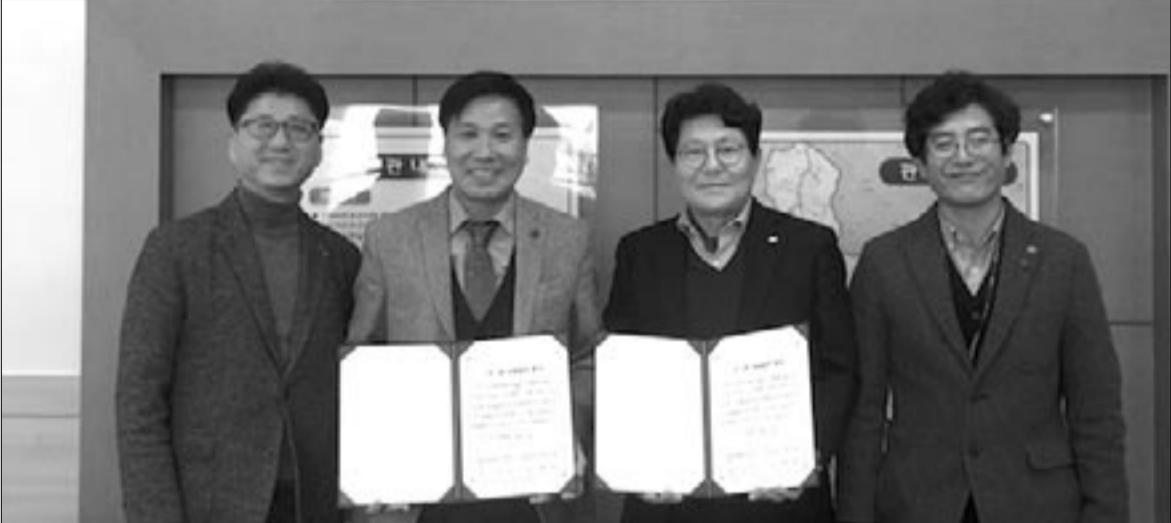
보령시 4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 개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어려운 이웃들은 몸은 물론 마음까지 얼어붙고 있다.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 김동일 시장은 17일 오전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4분기 찾아가는 읍면동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연말연시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동일 시장과 각 부서장, 읍면동장, 오천면 이장단 등 모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 주요시책의 추진상황 및 읍·면·동 주요시책 추진상

황을 점검하는 한편, 읍면동의 설해 및 취약계층 동절기 보호대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부서별 소관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의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숨은 인구 찾기 범시민 참여 ▲홍보미디어실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박람회지원단의 해양치유 국제머드포럼 참여 홍보 ▲자치행정국의 내년 읍면동 민생현장 방문 및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급 모금의 동참을 요청했다. 또 경제도시국의 보령사랑상품권 구매 및 이용 ▲해양수산관광국의 연안정화의 날 참여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농업기술센터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등의 협조를 구했다. 이밖에도 보령의 겨울철 대표 관광 콘텐츠인 대천해수욕장 스키 트레마파크, 무궁화수목원 눈썰매장,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에도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동절기 설해대책과 취약계층 보호대책, 희망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 등이 보고됐다. 김동일 시장은 “따뜻한 사회 분위기 확산으로 춥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영남강철(주) ← 복수면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식



금산 복수면-영남강철(주)

‘1사1촌 자매결연’ 체결

금산군 복수면은 지난 16일 복수면사무소에서 영남강철 간 '1사1촌 자매결연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유문식 복수면장, 최성대 영남강철(주) 대표이사, 직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했다. 1사1촌 운동은 기업과 마을이 자매결연을 체결해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기업은 농촌에서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의 제고

를, 마을은 기업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지역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향상 효과를 얻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일종의 상생 운동(win-win)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하게 후원하는 영남강철은 지역의 대표 장수기업으로 학생용 책집상 및 사물함이 주생산업이며 지난 10월 유망 중소기업으로 도 선정됐다. 금산=김정환 기자

공주시 사곡면 해월2리 경로당 준공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정보교류의 장 마련

공주시 사곡면(면장 광병수)은 지난 15일 기관단체 및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복지증진을 위해 사곡면 해월2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을 신축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해월2리 경로당은 총 1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방 2개와 거실 1개, 주방 1개, 다용도실 등을 갖춘 건물로 지어졌다. 시는 그동안 해월2리 경로당의 건물은 노후 돼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야기한 점을 고려해 마을 관계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경로당을 신축하게 됐다. 공주=정성범 기자

이근업 이장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이 준공돼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공동체 장소 및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병수 면장은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국민디자인단, 실력도 최고 마음도 최고

대통령상 포상금 전액 기부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디자인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서산시에 대통령 표창을 안겨준 서산시 국민디자인단의 통큰 기부가 화제다. 시에 따르면 서산시 국민디자인단은 16일 해단식을 갖고 포상금 3백만원 전액을 학대피해 아동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포상금 사용처를 고민하다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과제를 수행했던 민품 지역의 학대피해 아동들을 위해 보람 있게 쓰자는 데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 등 17명으로 구성된 서산시 국민디자인단이 발굴한 과제는 학대피해 아동에게 긴급피난처를 제공하고, 상담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쉼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과제는 지난달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전국적인 과급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최우수 과제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산시는 국민디자인단이 확정된 표준모형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해단식에서 맹정호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대안 마련에 고생한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각별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현기자



충남도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평가

서산시 최우수기관 선정

서산시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에서 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8년 국무총리 표창수상에 이어 올해도 충청남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3년 연속 음식문화 개선사업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서산시는 지난 16일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과로스에서

열린 '충청남도 2019년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도입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참여, 섬김의 음식문화 확산

▲건강한 식단실천 ▲개방형 주방개선 ▲자발적 참여 유도 등 13개 항목의 지표로 진행됐다. 서산시는 참여·섬김의 선진 음식문화 정착 및 건강식단 실천 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점과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통한 음식적 위생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음식문화 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산=김정현기자

공주시, 2019 도랑살리기운동 우수기관 선정

정안면 쌍달리 달원달동천 도랑 수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충청남도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2019 도랑살리기 운동' 평가결과 정안면 쌍달리 달원달동천이 우수도랑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에 우수도랑으로 선정된 정안면 쌍달리 달원달동천은 농촌체험마을과 마을회관에 인접한 도랑으로 그동안 훼손방지가 됐으나 지난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울 조성 및 수생식물 식재 등을 통해 자연과 생태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민 접근이 용이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어 민간단체 및 주민 등과 협약을 체결해 지속 가능한 추진 기반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주민 교육과 도랑 집중정화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로 우수도랑에 선정됐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도랑살리기 사업은 정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우수도랑 선정시례가 널리 확대돼 도랑살리기 운동이 다른 마을로 과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 기자

백석대·백석문화대 학생생활상담센터 '우수상담기관'

2019 동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상담기관' 선정... 수상의 영예 안아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와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송기신) 학생생활상담센터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 컨벤션홀에서 2박3일간 개최된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에서 진행된 2019 동계 학술대회에서 '우수 상담기관'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활동', '상담전문', '프로그램', '우수상담사' 네 개 부문 중 백석대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프로그램' 부문에 선정됐고, 백석문화대 학생생활상담센터는 '활동' 부문에 선정됐다.

시상식은 전국 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활성화와 상담원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



[사진 설명]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구성원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석대 한재희 상담대학원장, 양 대학 학생생활상담센터 김세영 소장, 백석대 남여명 전임상담원, 백석문화대 차재영 전임상담원,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김정희 회장)

상호 교류를 위해 준비했으며, 양 대학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백석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김세영 소장은 "대학 내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상담사 여러분들과 직원 선생님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상처가 조금이나마 이물도 록 상담사 선생님들이 노력해주고 계신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천안=이정복기자



공주시, 참전유공자 명비 준공·제막식 열려 공주시(시장김정섭)는 지난 16일 공주보훈공원에서 김정섭 시장과 박병수 의장, 임규호 충남동부보훈지청장, 김용국 공주보훈단체협의회회장, 참전유공자와 유가족, 기관단체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공훈을 선양하기 위한 참전유공자명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충남대 '2019 초기창업패키지 우수기업 구매상담회'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영석)은 17일 오후 2시, 대전 유성호텔 8층 스타볼룸에서 '2019 초기창업패키지 우수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남대 창업지원단, 한남대 창업지원단, 한밭대 창업지원단이 공동 주최·주관했다.



한밭대 플립러닝과 하브루타의 결합' 교수법 특강 운영 한밭대학교(총장 최병욱)는 지난 16일 교내 도서관에서 교수학습센터 주관으로 교수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질문과 토론을 활성화하는 교육: 플립러닝과 하브루타의 결합' 교수법 특강을 실시했다.



배재대 이성일 차장, 지역청년 해외취업공로 '서구청장상' 배재대학교(총장 김선재) 대학일자리본부 이성일 차장이 지난 16일 대전서구청 구봉산홀에서 열린 '서구를 빛낸 자랑스러운 수상자의 날' 행사에서 지역청년의 성공적인 해외취업에 헌신한 공로로 서구청장상을 수상했다.



산내복지관 '우리마을 반상회' 진행 산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인수)와 산내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경수), 산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강현)은 17일 산내농협 3층에서 지역주민 50여명과 함께 2019년 진행된 민관협력 사업을 함께 평가하고 2020년 더 발전된 산내를 만들기 위한 '우리마을 반상회'를 진행했다.



주택가구공업협동조합, 중기사랑나눔재단에 성금 2천만원 전달 한국주택가구공업협동조합 이기덕 이사장(왼쪽)이 17일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 2000만원을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재원 사무총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아산시, 전국사회적경제 평가 '우수상' 수상

제1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16일 서울 YWCA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제도와 정책, 거버넌스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심사결과 광역부문에서는 서울특별시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는 아산시, 화성시, 완주군이 선정됐다.

시는 2015년 충남 최초로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성매매 우려 지역 내 모텔을 리모델링해 아산시어울림경제센터와 청년내일센터를 운영해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청년이 어우러져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다.

특히, 올해 매월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열린대화마당을 운영해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에 주력했다.

또한 2020년 아산형 시민공감 정책마켓 추진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던 한해로 호평을 얻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같이하는 가치 있는 사회적경제 진화도시 아산이 중부권 사회적 가치 창출 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육성 발굴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과기대, 세무회계과 이지훈

제56회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

대전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효인(2019년 시행한 '제56회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회계과 이지훈 졸업생(2018년)이 최종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지훈 졸업생은 향후 세무사 연수교육을 받고 세무법인에서 근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정규 교육과정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세무회계과는 학생들이 세무, 회계 관련 자격증 취득은 물론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전문 자격증 합격을 위해 특별 지도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행복청, 세종 119특수구조단 청사 기본설계 완료

국비 약 75억원 투입, 2022년 세종소방서 옆에 건립될 예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12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세종 119특수구조단청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119특수구조단청사 건립' 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된 '세종 119특수구조단'의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복청은 2022년까지 국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537㎡(세종소

방서 동쪽으로 연접), 연면적 2020㎡의 규모(지상 4층, 지하 1층)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제안공모방식으로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자를 선정하였다.

제안공모단, 확정된 건축설계가 아닌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사업특성을 고려한 제안과제에 대한 아이디어, 건축설계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설계자를 선정후 건축설계를 발선시켜나가는 설계공모방

식을 말한다. 또한 행복청은 건물 사용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직원을 참여시키고 있다.

행복청은 내년 상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2년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복청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시민 안전과 관련된 건축물인 만큼 디자인적인 요소보다 사용자의 필요와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태선기자

당진시, 지속가능발전 수능 후 학교(서바이벌 당진) 운영

당진시와 당진시민단체가 함께 기획 및 진행



당진시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간 당

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 사회인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수능 후 학교'(서바이벌 당진)를 운영했다.

수능시험 후의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실용교육 위주로 당진시와 당진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당진 YMCA가 함께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했다.

지속가능발전의 이해, 부동산 계약 및 기초 경제상식, 인권 감수성 향상, 미리 보는 대학생생활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대

면사무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미리 보는 대학생생활' 강사로 참여해 당진고 3학년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진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으며 배려와 존중, 인권 감수성,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면서 특히 지역내 단체가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광역투어로 충남 당일여행 편하게 즐겨보세요"

'공주광역투어' 본격 운행... 세계유산도시 공주와 함께하는 충남여행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세계유산도시 공주를 홍보하기 위해 충남도내 인접 시군의 관광명소를 연계해 여행하는 '공주광역투

어'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공주광역투어는 수도권에서 출발하는 버스 및 기차여행 상품으로, 공주의 세계유산과 인접 시군의 관광명소를 연계한 코스로 내년까지 연중 운영된다.

기본 코스는 공주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무병왕릉, 마곡사를 비롯한 유적지와 함께 예산 예당호 출렁다리, 논산 선사인랜드 부

여 부소산성, 아산 외암민속마을 등 충남 곳곳의 관광명소를 다채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주의 대표 축제인 '2020 겨울공주관광축제' 기간에는 특별 축제코스를 운영하며, 마곡사 벚꽃과 논산 딸기체험, 아산 레일바이크 체험 등 시즌에 맞춘 코스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외 관광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예약이나 상품 가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름여행사 홈페이지(http://aumtr.co.kr)를 참조하거나 전화(☎1577-0419)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정성범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건양대 사이버보안공학과, 국가공공기관 보안취약점찾기 경진대회 최우수상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목) 사이버보안공학과는 16일 경북 김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가공공기관 보안취약점 찾기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사랑의 생필품 세트 전달식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16일 당진적십자봉사단의 자살예방멘토링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생필품 세트 378세트를 전달했다.



당진 삼해개발(주), 당서 이스콘(주) 장학금 3000만 원 기탁 당진 삼해개발(주), 당서 이스콘(주) 송성현 대표는 17일 당진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 달라며 당진장학회(이사장 김홍장)에 장학금 3000만 원을 기탁했다. 장학금 기탁 10년 차를 맞이한 올해 총누적 장학금은 3억2000만 원에 달한다.



순천향대 나누미, 사랑의 크리스마스 성금 전달 순천향대학교 온라인홍보단 나누미(회장 정지영)가 지난 16일, 아산시청을 방문해 사랑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성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크리스마스 캠페인은 2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를 앞둔 소외된 지역 이동을 돌보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회계법인 상지원 김중구 대표공인회계사, 나눔리더 83호 회원가입 회계법인 상지원 김중구 대표공인회계사(왼쪽)가 17일 오전 10시 상지원 사무실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기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리더 83호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철도공단 '2019 철도안전대상 · 소통 토크콘서트' 개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7일 한해 동안 철도공사 현장을 인연하게 관리한 협력사·부서를 격려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 철도안전대상 · 소통 토크콘서트'를 시행했다.

건양대 휴머니티칼리지-충남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양대학교(총장 이원목) 휴머니티칼리지(학장 김형곤)가 16일 논산 장의음합캠퍼스에서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조이현)과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원목 총장 및 김형곤 휴머니티칼리지학장 등 건양대 관계자들과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 정재현 기획운영실장, 강현정 행복학습팀장, 이영진 행복학습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충남도민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정보공유 및 교류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충남 시민대학 설립 및 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이라며 "건양대가 충남 남부권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은 "인간 장수 시대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함에 있어 평생교육의 중요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한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충남교육청-전교조충남지부 단체협약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총 98개조 417개항 합의

충남교육청과 전교조충남지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해 교육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5월 16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여 온 전교조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와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총 98개조 417개항을 합의하고 17일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학생회 주관의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에서 학생회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토론이 있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직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법적으로 정해진 모성 보호시간,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새 학기 맞이 청소용역 예산 편성 권장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도 함께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고,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남 혁신교육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서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회의 개최

이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공공의 역할 강화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지난 16일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는 아동기관, 경찰서, 대학교, 시민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단체장 등 14인으로 구성되어,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정책 기본 방향,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재학대 방지방안,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교육 등에 관한

정책 심의를 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올 한해 서구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 및 2020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유하고,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류하였다.

장종태 청장은 "국가의 정책과 자치구의 역할에 따라 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특히 아동 관련 기관·단체 간 협업을 통해 모든 아동이 존중받고 더 나아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취약계층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기자

NH투자증권, 2019 스마트

앱어워드 대상 수상



NH투자증권이 작년 은행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2019 스마트앱어워드'대상을 수상했다.

농협상호금융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인 'NH투자증권'이 지난 12일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2019 스마트앱어워드' 시상식에서 마케팅 이노베이션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앱어워드'는 인터넷전문가 3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스마트 앱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시상식이다.

송병배기자

결혼

▲ 한권석씨(천안시 흥보담당관) 여혼 = 21일 오후 2시 천안 티웨이 투게더 홀(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웅원3길 27 ☎041-555-7900).



월령초 학부모회, 후원물품 전달 아산시 음봉면 소재 월령초등학교 류진희 학부모 회장과 강영주 부회장, 김진영 총무, 학부모 장현주, 변현주가 지난 16일, 음봉면 행복마을추진단(공동위원장 최광락)면장 송재영 단장을 방문하여 라면과 핫반, 양말 등 총 370여개(370,000원 상당)를 전달했다.

현대제철, 크리스마스 '파란 산타'의 행복 선물

복지시설 30개 처에 무류담요, 조끼 등 선물 전달



현대제철 직원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자매 복지시설에서 '파란 산타' 웃음입은 산타잔치를 진행한다. 봉사자 50여명은 17일 당진제철소에서 '해피 크리스마스 산타잔치'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 노인, 아동센터 등 자매결연 복지시설 30곳에서 진행할 산타잔치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했다.

현대제철 임직원 봉사자들은 17일부터 24일까지 사업부 봉사단별로 복지시설을 방문해 무류담요와 조끼 등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시설 별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간식 나눔 등 복지시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맞춤형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한다.

현대제철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자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동지팍죽 나눔 봉사활동을 비롯해 해피 크리스마스 산타잔치, 사랑의 도서 전달, 관공서 성금 전달 등의 '연말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진=최근수기자

둔포면, 희망나눔2020 집중모듬 행사 개최

연말연시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아산시 둔포면(면장 유지상)은 지난 13일, 둔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희망2020 나눔캠페인' 집중모듬 행사를 개최해 훈훈한 감동을 주었다.

이날 행사에는 둔포면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둔포 지역 기업체를 비롯한 여러 기관단체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며, 직심자봉사회에서는 사랑의 열매 달아주기 등 성금 모금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 행사장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모여 힘겨운 겨울을 보낸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트가 되길 기대하며,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의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2020 나눔캠페인'성금모듬은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체 등은 둔포면 복지팀 ☎041-537-3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확산 방지 및 예방 수칙 캠페인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사율100%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는 서동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해외여행 자제
- ☑ 국내 입국시 동물과 축산물(육류, 햄, 소시지 등)은 반드시 신고
- ☑ 축사 내외 소독 실시, 축산농가 방문 및 방생지역 방문 자제
- ☑ 발열 및 피부충출혈등 이상 증상이 보이면 즉시 신고
-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 위한 방역조치 협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4060

의심축 발견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



주 관 | 대전투데이



후 원 | 대전광역시

